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부활하신 구세주, 2쪽
자신에 대해서 더 좋은 느낌을 가짐, 22쪽
가족 역사 두루마리, 친9쪽



부 활하신 구세주께서는 서반구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사 무리 가운데 서심에, …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파이삼서 11:8~10)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 신앙의 상징”, 2쪽.

리아호나



표지

앞: 그림: 사이먼 듀이, *바운터풀 땅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 교육 기구 제공. 뒤: 그림: 아놀드 프라이버그, *서반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친구들 표지

사우나 무니 가와사키가 만든 퀼트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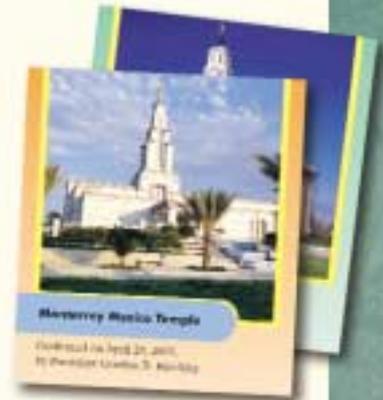
- 2 대관장단 메시지: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 8 그리스도의 빛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신권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기뻐함
- 30 효율적인 장로 정원희 데일 이 밀러 장로
- 34 가족을 강화함: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십시오
- 36 말일성도의 소리
 -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주디스 에이 디니
 -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티에리 호츠
 - 신앙으로 지은 집 호세 루이스 다 실바
- 40 균형 잡힌 삶 브렌트 엘 탐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7 포스터: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 15 요셉 스미스로부터 배우는 것
- 18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 22 질의 응답: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6 피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아담 시 올슨
- 44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제니안 젠슨
- 47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 보혜사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족은 영원해 마가렛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젊은 사도
- 친8 특별한 증인: 인물 탐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친9 가족 역사 두루마리 마가렛 쇼어스
- 친10 친구 사귀기: 로나 피셔와 아세나카 레수마, 피지 다베우니
 - 마가렛 스나이더
- 친13 노래: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 델마 맥 키는 앤더슨과 찰린 앤더슨 뉴웰
- 친14 장미 정원 패트 웨인
- 친16 성전 카드



"성전 카드", 친16쪽 참조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4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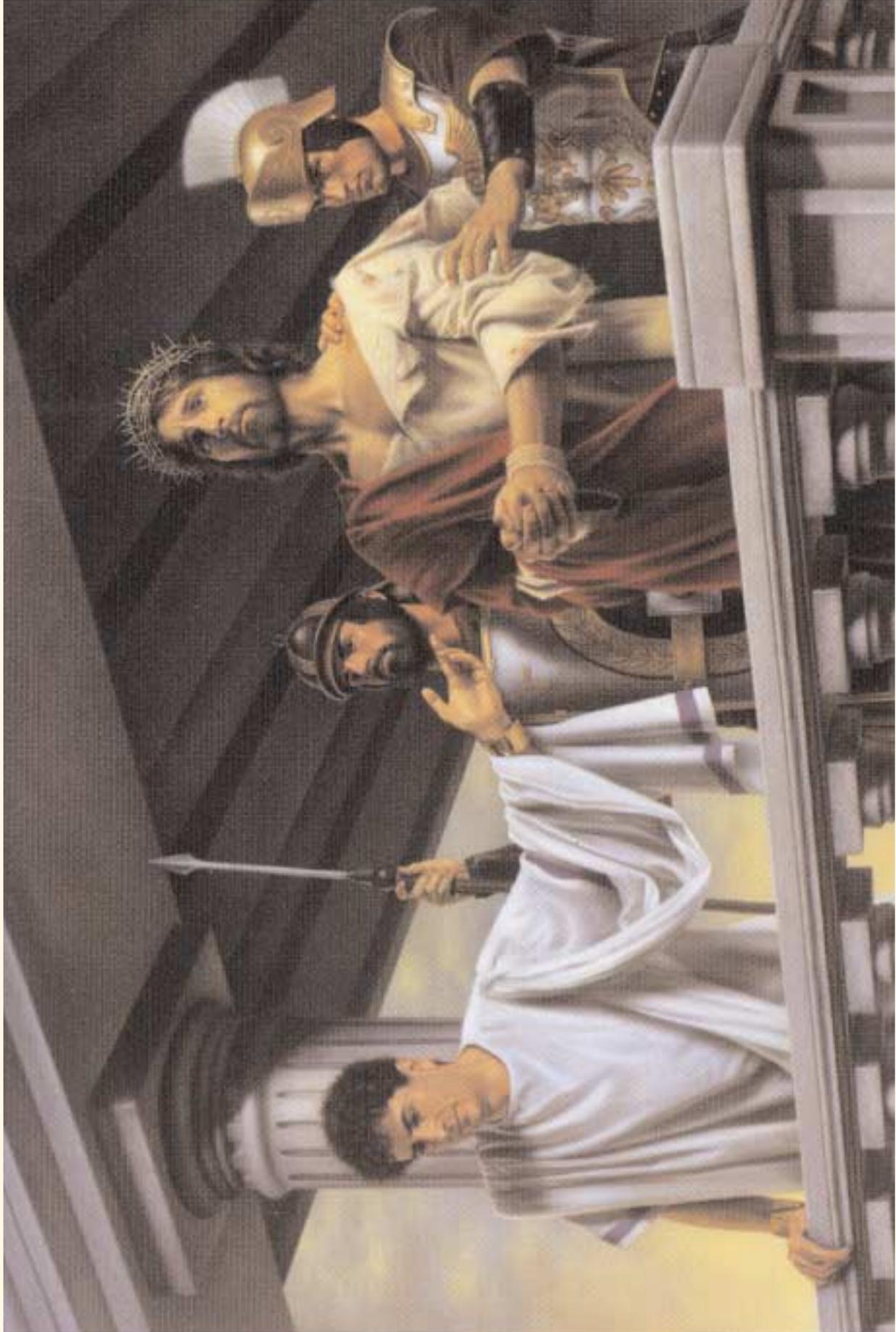


그림: 사이먼 듀이, 이 사람이로다

“이에 예수께서 가지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요한복음 19:5~6)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라운, 더블유 볼프 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홀니

관리 편집인: 마린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라트 네베커 오우,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칸,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래빗, 샬리 레이 오데카프, 아담 시 홀슨, 주디스 엠 팔러, 비비안 홀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엘, 모니카 워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이치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프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렌 프랫,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69호, 제 42권, 제 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희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국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보이어, 세루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루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April 2005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그리스도의 빛”, 8쪽: 이 기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가족에게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 사이의 차이점을 열거하도록 권유한다.

“피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26쪽: 회원들이 보다 완전하게 자립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제공했는가? 이것이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었는가? 기사에 나오는 청소년들처럼 함께 일하기 위해 가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균형 잡힌 삶”, 40쪽: 머리 위에 책을 놓거나 한 손가락에 공을 놓고 돌리기와 같이 균형을 잡는 안전한 요령을 가족이 연습하게 한다. 균형이라는 낱말의 의미와, 물체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균형이 깨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기사를 활용하여 우리가 생활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44쪽: 막대기 하나를 부르뜨리는 것이 얼마나 쉽고 또 묶여져 있는 막대기 한 다발을 부르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이 활동이 이 기사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어떻게 비슷한지에 대해 토론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해 이 기사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보혜사”, 친2쪽: 가족 한 사람을 담요로 휘감는다. 담요가 성신의 은사와 어떻게 비슷한지를 묻는다. 이 기사를 활용하여

- 성신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관한 제임스
-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가르침을
- 설명한다. 가족에게 성신이 그들을 위로해
- 주었던 때에 관해 말해 줄 것을 권유한다.
- “장미 정원”, 친14쪽: 여러분 가족에게
- 이 이야기를 읽어 주면서 마이크가 슬펐던
- 이유와 무엇이 그의 느낌을 좋게 하는 데
- 도움이 되었는지를 잘 들어 보라고 한다.
- 가족 관계가 무뎠던 나머지 계속될 수
- 있다고 간증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성전, 18, 36, 친16
가정 복음 교육, 7, 36	속죄, 2, 7, 40, 친13
가정의 밤, 1	순결, 34
가족 역사, 친9	순종, 47, 친4
가족, 34, 친4, 친10	신권, 25, 30
간증, 2	신앙, 2, 36, 친10
개종, 36, 44	어린이, 34
결혼, 34	역경, 36, 44
균형, 40	예수 그리스도, 2, 7, 8,
그리스도의 빛, 8	40, 친13
낙태, 34	요셉 스미스, 15, 18, 44
모범, 36, 47	우선 순위, 40
방문 교육, 25, 36	우정, 30, 44, 친10
복지, 26	일, 26, 36, 친14
봉사, 26, 30, 36, 47,	자기 가치, 22
친6	자신감, 22
부활, 2, 친13, 친14	장로 정원회, 30
부활절, 2, 7	지도력, 30, 47
사도, 친6, 친8	초등학교, 친4
선교 사업, 36, 44	활동 촉진, 30, 36
성신, 8, 36, 친2	회복, 15, 18, 25



우리 신앙의 상징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오래 전 애리조나 메사 성전을 보수한 후, 우리는 일반 공개 기간의 첫날에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의 어떤 질문에라도 대답을 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개신교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건물을 다 둘러보았는데, 이 성전의 바깥 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써어 있었지만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 교회의 건물을 본 일이 있지만, 역시 십자가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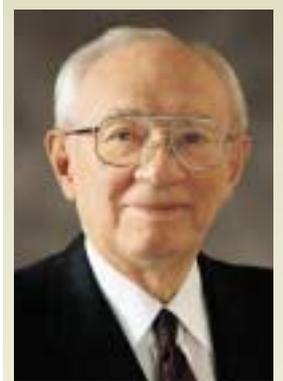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성당의 첨탑이나 예배당의 제단에 십자가를 사용하거나 성직복에 십자가를 부착하고, 책이나 기타 다른 출판물에 십자가를 새겨 놓는 기독교 동역자들 어느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는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상징인 반면 우리의 메시지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물었습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종교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회원들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의미있는 표현이며, 또한 사실상 우리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 때문에 그가 저를 잘난 척하거나 독선적인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에 대한 사람들의 첫 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 인물이라는 우리의 주장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 명칭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과 구세주로 예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전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신성한 영감을 받아 말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아버지의 독생자의 탄생, 성역, 사망 및 부활 등의 사건을 전하는 마태, 마가, 누가 및 요한의 기록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대의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는] 이 복음[이] ...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로마서 1:16)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사도행전 4:12) 유일한 이름임을



우리 회원들의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의미 있는 표현으로서, 우리 예배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단언합니다.

우리가 신세계의 성약으로 여기고 있고 고대에 서반구에 살았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전해 주는 몰몬경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몰몬경은 주님의 신성함에 대한 강력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1,500년 전에 미대륙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쓴 그 책의 서문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 그 책이 기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계시의 책인 교리와 성약에서 그분은 이러한 확실한 말로 이렇게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리와 성약 19:1)

이 같은 선언과 그런 간증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애리조나에서의 제 성직자 친구처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왜 그분의 죽음의 상징인 갈보리의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저는 먼저, 이 교회의 어떤 회원도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구속주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 즉 겻세마네에서의 고뇌, 재판정에서의 견디기 어려운 모욕, 살을 찢는 가시관, 빌라도 앞에서 폭도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 갈보리로 가는 길을 외롭게 걷는 그분의 무거운 발걸음,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힐 때의 끔찍한 고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비극의 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외치실 때 그분의 육신에 가해진 모진 고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대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즉 그분을 고문한 도구이며, 평강의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 고안된 끔찍한 장치이며, 병자를 고쳐 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그분의 놀라운 업적에 대한 악의적인 보상이었습니다. 그분께서 골고다의 쓸쓸한 언덕 위에서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 곳에서 우리의 구세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생명 없는 육신을 끌어내려 빌린 무덤에 황급히 누워졌던 유대의 안식일 전날의 어두운 저녁의 침울함은 심지어 그분을 잘 알고 있고 가장 헌신적인 제자들의 희망까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매우 슬펐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야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온갖 소망과 신앙과 희망을 걸고 있던 그들의 스승께서 사라지셨습니다. 영생에 관해 말씀하시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그분이, 그분 앞에 죽어 간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슬픔에 찬 짧은 생애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분의 생을

이사야는 오래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이사야 53:3, 5) 이제 그분은 가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달력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유대의 안식일의 오랜 시간 동안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가졌던 느낌을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 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안식일, 즉 일주일의 첫째 날이 밝아 왔습니다.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무덤에 왔던 사람들에게 그 곳에 있던 천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1:2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분은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에 그분은 권세와 아름다움과 생명 속에서, 즉 잠자는 모든 자의 첫 열매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한 확신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죽어 가고 있던 예수였습니다. 무덤에서 그분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이 교회의 어떤 회원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 구속주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배신이라는 쓴 열매, 베드로의 부인의 결과였습니다. 빈 무덤은 그분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 영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라는 욥의 응답 받지 못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그쳤다면 그분은 그대로 잊혀졌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그 생애가 역사 책에 단 몇 줄로 요약되는 많은 훌륭한 교사들 중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부활하셨기에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사와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제자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의 다음과 같은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욥기 19:25~27)

마리아가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을 때 “답오니여(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요한복음 20:16)라고 부른 것은 적절한 것이었는데, 이는 참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체의 주이시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쏘는 것은 사라지고, 무덤의 승리가 깨어졌습니다.

무서워하던 베드로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까지도 진지하고 경건하고 실제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요한복음 20:28)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놀라운 순간에 주님께서 하셨던 잊을 수 없는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7)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바울이 기록한 대로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던]”(고린도전서 15:6) 것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반구에도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리라

“... 보라 저들이 보매 하늘로부터 인자가 하강하시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저가 하강하시 무리 가운데 서심에 ...

“이에 저가 손을 앞으로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예언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 ...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오라]”(니파이삼서 11:3, 6~10, 14) 그런 다음 이 아름다운 기사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들 사이에서 베푸신 성역에 대한 많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의 증인이 있는데, 이는 이 경륜의 시대, 즉 이미 예언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시현 속에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주님과 그분의 아버지,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고대 진리의 회복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 소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히브리서 12:1)이 뒤를 이었으며, 첫 번째 시현을 보았던 요셉 스미스, 곧 현대의 예언자는 진지한 말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24)

성령의 권세로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엄숙하게 간증해 왔고 또 현재 간증하고 있는 수백만 증인들의 간증을 이상의 간증에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은 그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자신의 조국인 베트남에 커다란 고통이 있었던 시기 동안에 알게 된 한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침착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하나님, 즉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커다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신념을 가지고 그가 이런 노래를 부르던 것을 저는 푹푹히 기억합니다.

나 너를 불러 깊은 물 건너나
슬픔의 강물이 넘치지 못하리
나 너 함께하고 근심 털어주며
네 깊은 곤경을 불태워 없애리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의 상징물을 우리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어떤 표적이나, 어떤 예술 작품, 어떤 형태의 표현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경이로움을 표현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이 그러한 상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고는 천하거나 허울만 있거나 불쾌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짊어져 온 그분의 이름이라는 상징을 더욱 빛나게 하고 닦지 않고서는 선하고 점잖고 관대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표현,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지닌 간증의 선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상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것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것으로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승리한 나의 구속주
살아 계심을 아오니
고통과 사망 이기신
나의 왕 나의 구속주

신앙의 반석 인류의
밝은 빛 살아 계시니
사망의 장막 너머로
더 좋은 길 밝히시네

주님의 영광 평안을
저에게 내려 주소서
의로운 길 걷는 신앙
영생으로 이끄시네

(고든 비 힝클리,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우리 교회 건물에는 왜 십자가가 없는가? 우리 종교의 상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힝클리 대관장이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를 읽는다.(처음의 다섯 단락 참조) 어떤 성구가 우리 종교의 상징을 설명하는가?(마지막 네 단락 참조) 우리 신앙의 상징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밝게 빛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 가족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심 인물”은 어떤 일을 하고 됴됨이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게 한다. 이 기사에서 우리 신앙의 중심 인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는 부분을 소리내어 읽고 그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3.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에서 좋아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가족 각자에게 권유한다. 그분에 관한 한두 가지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소리내어 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그리고 구속의 희생에 관해 간증한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하셨던 일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7:41 참조)

그림: 시이먼 루이, 성 아비리아, ALTUS FINE ART, AMERICAN FORK, UTAH 제공, 복사 금지

그리스도의 빛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거나 복음에 따라 생활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은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에 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대부분의 교회 회원들은 성신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속삭임을 경험했으며 성신이 보혜사라고 불리는 이유를 압니다.

그들은 “성신은 ... 영적 존재”(교리와 성약 130:22)이며, 신화의 일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신앙개조 제1조 참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다른 영, 즉 “그리스도의 빛”(교리와 성약 88:7)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영감의 또 다른 근원으로 우리 각자는 인간 가족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 안다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으로 그것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성신과 그리스도의 빛은 서로 다릅니다. 경전에서 때로는 같은 말로 묘사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서로 다르고 구별되는 개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차이에 관해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생명에 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온 인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훌륭한 교사와 선교사, 그리고 부모, 또한 더 훌륭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리고 믿지 않아 아직까지 성신의 은사를 부여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경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는]”(교리와 성약 84:46) 영이며 또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교리와 성약 88:13; 또한 요한복음 1:4~9; 교리와 성약 84:45~47; 88:6; 93:9 참조)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에서 그리스도의 빛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교리와 성약 84:45), “주의 영”(고린도후서 3:18; 또한 모사이야서 25:24 참조), “진리의 영”(교리와 성약 93:26), “진리의 빛”(교리와 성약 88:6), “하나님의 영”(교리와 성약 46:17), “성령”(교리와 성약 45:57)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대관장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며 생명이 되는 요소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으며, 이것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그의 신앙과 순종심에 따라 다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이며 권세이다.”¹

이런 내적인 빛과 관계 없이, 옳고 그름에 관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의 빛, 도덕적 감각, 또는 양심이라 불리며, 우리가 그것을 억누르거나 잠잠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도록 우리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의 자녀들은 육신을 받아 시험을 받기 위해 필멸의 세상으로 옵니다.

“주께서[는] ... 저들은 내 손의 솜씨니 내가 저들을 만드는 날에 저들에게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저들에게 [선택]의지를 주었도다.”(모세서 7: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인간은 만민을 위하여 마련된 크신 중보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여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입니다.”(니파이이서 2:27)

그러므로 우리는 “이로써 내가 준 도덕적 의제 선택의지라는 말은 계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미래에 관한 교리와 원리에 알맞은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임을”(교리와 성약 101:78)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데살로니가전서 5:19)는 권고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음을”(니파이이서 2:5; 또한 니파이이서 2:27 참조)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갖고 있으며,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은 선한 모든 것과 모든 덕을 촉진시켜 줍니다.(모로나이서 7:16 참조) 그것은 거칠거나 추하거나 세속적이거나 악하거나 사악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찬란하고, 불멸하는 쪽에 존재합니다.(모로나이서 7:17 참조)

양심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재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또한 선과 악의 실재, 공의, 자비, 명예, 용기, 신앙, 사랑, 덕뿐 아니라 필요한 반대되는 것들, 즉 증오, 탐욕, 무자비, 질투의 실재도 확인해 줍니다.(니파이이서 2:11, 16 참조) 그런 가치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물리적인 법칙에서 생기는 어떤 것들만큼이나 확실하게 인과 관계를 갖고 율법에 반응합니다.(갈라디아서 6:7~9 참조)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사람을 위한 “수호 천사”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²

그리스도의 영은 온 인류의 축복과 유익을 위하여 위대하고, 심지어는 영감에 찬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 발명가, 과학자, 화가, 조각가, 작곡가, 연주자, 설계자, 작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은 밭에 있는 농부와 배에 있는 어부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실에 있는 교사, 토론 내용을 가르치는 선교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청하고 있는 학생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내적인 빛은 경고하고 지켜 주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거나 가치 없거나 사악하거나 부도덕하거나 이기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는 멀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존재했으며(교리와 성약 93:23, 29~30 참조), 여러분이 생활하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필멸의 부분이 흠으로 변할 때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곳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 종교, 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모든 남자, 여자와 어린이들, 즉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곳이나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또는 무엇을 행하든지에 관계없이 그들 안에 불멸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창조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입니다.(교리와 성약 1:35 참조) 그분은

그리스도의 빛을 준다는 면에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교사나 선교사 또는 부모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는 생소한 것이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어떤 것을 성인이나 어린이에게 심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교사나 교사는 그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접촉을 합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친숙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르침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나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귀기울여 듣게 될 사람들이] 확신하게” 해 줄 것입니다.(몰몬경 표제지)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교회가 세워질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토대는 필멸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만져서 느낄 수도 없는 교리의 돌로 세워졌습니다. 즉 그것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풍화되거나 부서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러지거나 용해되거나 파괴될 수 없습니다. 교리의 이런 돌들은 멀해지지도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교리의 돌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인 “창세 이전부터”(교리와 성약 124:38) 존재했습니다.(교리와 성약 124:41 참조) 그리스도는 그것들 위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마태복음 21:42)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배도의 그림자가 지상을 뒤덮었습니다. 신권 권능선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완전한 암흑 혹은 계시나 영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인해 하늘이 닫혔으며, 또 첫 번째 시현으로 인해 하늘이 열렸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즉 성신은 찾는 사람들을 방문해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신권의 회복과 모든 것이 밝혀지는 시기인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전 사업, 즉 의식 사업은 그 때에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필수적인 의식이 없었고, 침례가 없었던 많은 세대 동안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동일한 교리의 초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감각을 통해 거의 모든 것을 배우기 때문에, 보거나 느낄 수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이런 교리들을 가르치셨으며, 그것들은 오늘날에도 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집니다. 위대한 스승이신 그분이 그것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이런 교리의 돌들을 화강암이나 부싯돌이나 대리석과 같이 분명히 만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진리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리석은 아무렇게나 생긴 돌 속에 숨겨져 조각가만이 보는 어떤 형상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각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이런 교리의 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거나 이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셨던 방법과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간단하면서도 매우 심오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교리에 대한 상징으로서 만질 수 있는 물체를 택한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행하신 것처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이미 알려진 물체를 그 교리와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신앙을 씨앗, 즉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씨앗을 키운다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누가복음 13:19 참조)

그분은 천국을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에 비유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마태복음 13:47)라고



그리스도의 영은 발명가, 과학자, 화가, 조각가들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그 영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으며,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마태복음 13:4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소금(마태복음 5:13; 마가복음 9:49~50; 누가복음 14:34 참조), 등불(마태복음 5:15; 마가복음 4:21; 누가복음 8:16; 11:33~36; 요한계시록 18:23 참조), 비(마태복음 7:25~27 참조), 그리고 무지개(요한계시록 4:3; 10:1 참조)와 같은 평범한 것들을 예로써, 상징으로써 사용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런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에도 비슷한 성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거나 만질 수 없는 원리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실생활에 기초를 둔 이야기나 비유가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한 번,
물몬경에서 세 번,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서 세 번,
구세주께서는 병아리가 있는
암탉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37;
누가복음 13:34;
니파이삼서 10:4~6;
교리와 성약 10:65;
29:2; 43:24
참조) 모든 사람들은
암탉과 병아리에 관해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압니다.

사실 신앙이 정말 씨앗과 같거나 천국이 정말 그물이나 보화나 누룩(누가복음 13:21 참조) 또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마태복음 13:45)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례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의 눈, 그들의 육적인 눈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의 눈을 여실 수 있었습니다.(마태복음 13:15; 요한복음 12:40; 사도행전 28:27; 에베소서 1:18; 니파이서 16:10; 교리와 성약 76:12, 19; 88:11; 110:1 참조)

이해의 눈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봅니다. 밖으로 뻗는 우리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만질 수 있고, 그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체적 감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천사가 준 메시지를 거부하고 모반하는 형들에게 니파이가 “너희 마음이 무디어 [그의 말을 느끼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45)라고 말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성신]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대 리석은 조각가가 보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조각가의 손에 맡겨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은 만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이런 교리의 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0, 13~14)

현대의 계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고] … 너희 눈을 뜨게 하[고] …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교리와 성약 88:11)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볼 수 없고 만져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치셨을 때 그분께서 하셨던 것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 가르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묘사하기 위해 저는 그것을
태양 빛에 비유하겠습니다. 태양 빛은 누구에게나
익숙합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은 태양 빛에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 빛과 비슷합니다.
그것은 또한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태양 빛이 나타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악은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멀리 쫓겨납니다.

태양 빛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그것에 복종합니다.
태양은 구름이나 지구의 회전에 의해 감추어질 수는 있지만
구름은 사라질 것이고 지구는 그 회전을 다할 것입니다.

계획에 따라, 우리는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인 마땅”(니파이서 2:11) 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악마는 … 단 하나라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악마의 천사들도 그러하며 악마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다 그러함이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며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모로나이서 7:17~18)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이 빛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악한
것이 그것을 어둠게 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빛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여러분을 믿게 하여 혼란을 일으킴으로써 그 빛이 크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태양 빛이 평균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건, 어디에 있건, 어느 때에든, 모든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욥기 32:8)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성신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영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교회 회원이 아니라 하여도
진실한 마음으로 빛과 진리를 구한다면, 그는 성신의 방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은 나타나셔서 그가 갈구하는 간증을 준 다음
떠납니다. 그는 성신에게 또다시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달라든가,
또는 떠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혹 다른 영,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계속 인도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³

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그 곳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거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으며, 성신의 영이 어느 누구든 방문할 수
있는 반면에 성신의 은사는 “복음의 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신앙개조 제3조),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 …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신앙개조 제4조)에 의해 얻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은사는 권능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의해 부여되어야 합니다.(신앙개조 제5조 참조)

그것이 우리가 맡아 행해야 하는 일,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키우고, 성신이 사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곳까지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때가
되면 그들은 의식을 통해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부여되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성신의 그 은사를 받고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그것을 계발할 수 있다면 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성신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작용할 수
있습니다.⁴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 빛처럼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모든
살아 있는 영혼은 그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모든 것의
후원자입니다. 그것은 인류를 축복하고 유익을 가져다줄 모든
것에 관해 영감을 주는 이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을 키워 줍니다.

물론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빛을 구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선한
모든 것을 좇으며 이를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모로나이서 7:19)

모든 사람들은 태양 빛에 관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태양 빛에 비유할 때, 여러분의 경험에 따른
평범한 예들이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거의

무궁무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나 성인들도 이런 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계시가 빛을 통하여 어떻게 올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닌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도 작은 한 조각의 광섬유는 동시에 40,000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들은 부호로 만들어져 다시 화상이나 소리 및 색상, 심지어는 동영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나 광섬유가 전혀 없는 곳에서 레이저 광선은 1초에 1조 비트의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진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 안에 있고 성신이 우리 중 누구라도 방문할 수 있다는 약속에 우리가 왜 놀라야 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는 계시가 그리스도의 영광 성신을 통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오노기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경전 어디에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은 그리스도의 빛에 관한 풍성한 자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빛 ... 이 진리는 빛을 말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저는 또한 태양 안에 계시나니, 태양의 빛이시요, 그 태양을 만드신 힘이시니라.”(교리와 성약 88:6~7)

교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것들에 관해 증거하는 책임을 지닌 평범한 교사들은 영적인 것들에 비유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은 성신, 즉 보혜사의 영에 의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성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는 말을 듣습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빛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습니다. ... [그리스도의 빛에 관해 말하며]

우리가 용서 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 광채가 너무도 희미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곳에 있어 부채질을 한다면 이해와 지식으로 더욱 밝게 타올라 불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사업은 헛될 것입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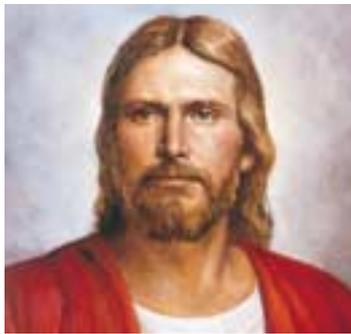
만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모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의 실재를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과제,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위험들을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들을 넘어서는 영감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 진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원리들의 의미를 파악하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그것들을 적용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고, 복음의 회복이 실재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온 세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교리와 성약 1:30)라는 간증에 따르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온 인류에게 발산됩니다.

선교사나 교사로 부름을 받은 분들, 그리고 부모이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킴][취함]”(니파이이서 32:3)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여러분이]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2004년 6월 22일에 유타 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열린 신임 선교부장 세미나에서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는 약속에 우리가 왜 놀라야 합니까?

- 주
1. “Receiving’ the Holy Ghost”, *Improvement Era*, 1916년 3월호, 460쪽.
 2. 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 브루스 알 맥콩키 편, 3권, 1:51.
 3. *구원의 교리*, 1:40~41. 또한 요셉 스미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45쪽.
 4. *구원의 교리*, 1:51.
 5.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ed. Clyde J. Williams(1996), 101쪽.

요셉 스미스로부터 배우는 것

요셉 스미스가 진리를 알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집 근처 숲으로 갔을 때, 그는 겨우 열네 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다. 그 두 분이 그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시현 및 교회의 회복과 관련된 다른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믿기 힘들어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현이 1820년에 뉴욕 주의 한 조그만 농장에 있는 숲 속에서 일어났음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다음 기사들을 통해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있는 전세계의 열네 살짜리 청소년들로부터 배우게 될 것이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이 받았던 모든 일을 무척 용감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현이 그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또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된 누군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성신의 속삭임에 따름으로써 오늘날 청소년들 역시 많은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보았으며, 구세주께서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가 매우 용감했으며 복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당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키릴라 에우헤니아 바르디 아기에레, 콜롬비아 카르타헤나 로스 알페스 스테이크 부에노스아이레스 와드

저는 요셉 스미스가 십대 청소년이었을 적에 그가 헤쳐 나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분은 여전히 충실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많은 것, 즉 성신에 귀 기울이고, 옳은 일을 행하고, 또 참된 것을 수호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참된 교회를 회복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충만한 복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며, 저는 오늘날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겸손하게 해 줍니다. 저는 회복된 복음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빌리엄 말라니, 피지 수바 노스 스테이크 사마부라 제1와드(영어)

그림: 클렌 에스 홀킨스, 피터인은 일했다, 복서 금지



왜 열네 살 입니까?

“요셉은 소년일 때 [성스러운 숲으로] 갔습니다. 때때로 저는

주님께서 왜 14세의 소년을 그 숲으로 들어가게 하셨는지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왜 주님은 [요셉이] 연륜에서 나오는 권위를 가질 20세나 30세 또는 4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으며 그가 소년으로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필요한 자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라고 했으며, 기도를 통해 어떤 결과가 주어지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고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드린 기도의 내용은 모르지만 그가 주님께 여쭙어 보았으며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거나 짧더라도 요셉 스미스는 그 몇 분 동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제까지의 박식한 모든 신학자들이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영감을 주는 말씀들”, 리아호나, 1997년 8월호, 4~5쪽.

요셉 스미스가 기도할 수 있었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된 것이 그분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어렵습니다. 때때로 저는 신앙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그분이 지나온 길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견디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제게 조금 더 강해지고, 조금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고, 요셉 스미스에게 커다란 감사의 신세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랜디 호리타 테마로히라니, 투부아이 아우스트랄레스 지방부 마후 지부





주님은 요셉 스미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소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저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나쁜 일이 제 친구와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리아호나를 읽으면서 저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마태복음 5:44)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일어났던 일을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고 느낍니다.

요셉 스미스는 또한 선교 사업을 조직했으며, 선교 사업을 통해 교회는 세계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머나먼 곳에서도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하늘, 대한민국 북스테이크 신촌 와드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고 교회를 회복하라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갑자기 나타나신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제게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진리를 찾는 데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들었을 때, 제 자신에 대해 불평을 크게 하거나 제가 가엾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없었다면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저의 기초입니다.

스펜서 아마다, 뉴욕 주 뉴욕 스테이크 맨해튼 제2와드



제가 어렸을 때 요셉 스미스에 관해 배우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것이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경전을 더 많이 읽고 그의 경험에 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관해 배우고, 생각하거나 읽으면서 제가 가진 느낌들은 간증을 더 크게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경험에 관해 아는 것이 제가 다른 일을 행하도록 유혹이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압니다. 요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정말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로빈 레네 도니, 버몬트 몽펠리에 스테이크 에섹스 와드



어느 날 밤 저는 물문경을 읽었으며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물문경에 있는 가르침이 참되고,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또한 요셉 스미스가 물문경을 번역했으며 지상에 복음을 회복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커다란 시련과 환란을 많이 겪었으며 그것들을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용감하게 일어서서 다른 교회의 전도자들과 신앙인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요셉 스미스를 박해했지만 그는 자신이 시현을 보았음을 알고 있었고 진리대로 따르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진리를 수호하고 끝까지 견디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팜 수에트 링 로슬린, 말레이시아 이포 지방부 이포 제1지부

회복: 진리가 다시 주어짐

새나 버틀러
교회 잡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 차례 세상 사람들에게 계시되었다. 그것은 물론경의 예언자들을 포함하여,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및 각 경륜의 시대의 여러 예언자들에게 주어졌다. 구세주께서도 그분의 경륜의 시대에 복음을 다시 가져오셨다. 복음은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여러 차례 거절되거나 지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번 회복될 필요가 있었다. 결국, 복음은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마지막으로 회복되었다.

이 말일에 복음의 회복과 교회의 성장을 가능케 한 최초의 사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교성 66:2 참조)

첫 번째 시현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820년 봄, 당시 열네 살이었던 요셉 스미스 이세는 이 구절을 읽고 야고보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요셉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도했던 성스러운 숲에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오랜 배도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의 영광스러운 새벽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조용한 나무 숲, 가장 성스러운 이 곳에서 하나님의 실재가 다시 알려졌습니다.

“세파에 물들지 않고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은 이 곳에서 주어진 계시와 앞으로 올 많은 계시를 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때로부터 열다섯 번째로 그의 뒤를 이은 저는 그에게 주어졌던 예언자의 외투를 걸치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기록한 사건들, 즉 이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의 신성함을 증거해 주시고, 아들이 소년 예언자에게 지시하였으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물몬경이 3월에
출판되었다.

교회가 4월 6일,
뉴욕 주 페이엣에서
조직되었다.

커틀랜드 성전이
3월 27일에
헌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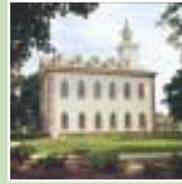
4월 3일에 주님이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에게 나타나셨다.



1830년



1830년



1836년



183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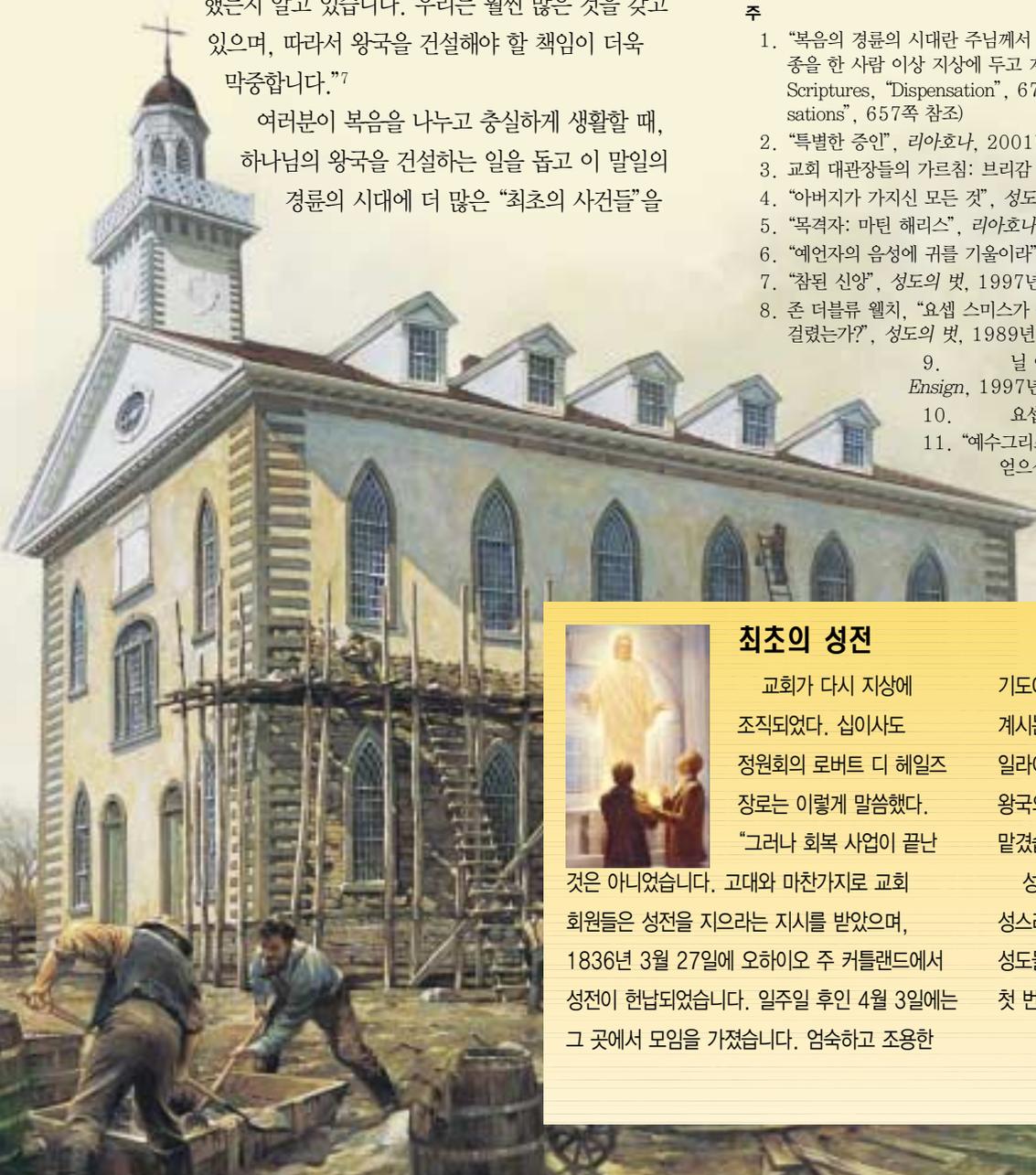
그러한 일들이 기대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무엇을 갖고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왕국을 건설해야 할 책임이 더욱
막중합니다.”⁷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고 충실하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고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더 많은 “최초의 사건들”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주

1. “복음의 경륜의 시대란 주님께서 거룩한 신권의 열쇠를 소유한 승인된 종을 한 사람 이상 지상에 두고 계셨던 시기를 말한다.”(Guide to the Scriptures, “Dispensation”, 67쪽; 또한 Bible Dictionary, “Dispensations”, 657쪽 참조)
2. “특별한 증인”,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24쪽.
3. 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96쪽.
4.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 *성도의 빛*, 1990년 5월호, 4쪽.
5. “목격자: 마틴 해리스”,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41쪽.
6. “예언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17쪽.
7. “참된 신앙”,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66~67쪽.
8. 존 더블류 웰치, “요셉 스미스가 물몬경을 번역하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성도의 빛*, 1989년 9월호, 14~15쪽 참조.
9. 닐 에이 맥스웰,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로”, *Ensign*, 1997년 7월호, 39~40쪽 참조.
10. 요셉 스미스서 2:71.
11. “예수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30쪽.



최초의 성전

교회가 다시 지상에
조직되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러나 회복 사업이 끝난

기도에 뒤이어 요셉과 올리버는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 모세와
일라이어스, 그리고 엘리야도 그 곳에 나타나
왕국의 열쇠와 구원에 필요한 의식들을 요셉에게
말씀했습니다.”¹¹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대와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은 성전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1836년 3월 27일에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3일에는
그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한

성전이 헌납되고 그 곳에서 예언자에게
성스러운 열쇠들이 회복된 지 불과 2년 후에,
성도들은 가난과, 박해 및 배도로 인해 커틀랜드와
첫 번째 성전을 남겨 둔 채 떠나야 했다.

질 의 응 답

“어떤 사람들은 제가 열등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처질 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똑하거나 잘 생기거나 재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신감을 얻고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형 제님은 자신의 가치를 찾는 데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군요. 그것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면,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 생기거나 재능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자신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주님의 표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주가 이르셨으며 이 자가 저 자보다 뛰어났다고 이르거나 혹 너희가 다른 자들보다 뛰어난 자라 하지 말라 하신지라.” (모사이야서 23:7) 사람들은 형제님이 가진 것과 다른 재능들을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형제님은 자신만이 나눌 수 있는 영의 힘과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님이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복음대로 생활할 때 얻는 축복 중 하나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형제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며, 사탄은 형제님이 비참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반대 상황을 모세의 생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악마가 모세를 유혹했을 때, 그는

주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노력할 때 자신의 가치와 자신감은 커질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모세서 1:13, 24~25 참조)

모세처럼 형제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형제님이 그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형제님이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열등감을 느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형제님이 세상적인 표준, 즉 외모, 인기, 지능 등으로 자신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표준은 다릅니다. “여호와와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 형제님의 마음이 유덕하고 사랑으로 차 있을 경우,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형제님의] 신임이 두터워[질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21:45). 그것이 가장 훌륭한 신임(자신감)입니다.

자신에 대해 더 좋은 느낌을 갖기 위해 다음 방법들을 시도해 보십시오.

- 모세처럼, 형제님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갖고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잊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 자신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으십시오.
- 자신에게 있는 훌륭한 점들을 찾아보십시오.
-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십시오. 기꺼이 하는 봉사는 기쁨과 자기 가치를 느끼도록 해 줄 것입니다.
- 운동을 하십시오. 신체적인 활동은 형제님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텔 사진. 촬영: 월드 시 앤드슨

-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능을 발전시키십시오.
-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이 형제님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독자들의 대답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도록 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밀 레버트, 20세, 퀘벡 몬트리올 스테이크 레모인 와드



열등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너무나 빨리 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훌륭한 충고를 줄 수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에게 그들이 형제님에 대해 좋아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 보십시오.

데보라 토르케, 17세, 독일 노이윈스터 스테이크
노이윈스터 와드



저는 더 좋은 느낌을 갖고 자신의 열등함이
오히려 힘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리나곤 수파코테, 18세, 타이 콘 캔 지방부 코라트 지방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공부할 경우, 우리는 많은 재능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금식하고, 경전을 읽고, 가정의 밤에
참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니콜라이 로세프, 17세, 러시아 모스크바 선교부
니제고로드스키 첸트랄리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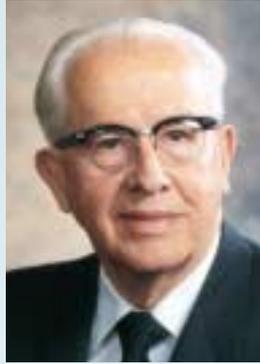


저는 형제님의 느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늘 더 훌륭하게 되려는 어떤
사람처럼 저도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일이 이러한 생각을 중단케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통해 저는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 저는 재능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리지 페코라, 16세, 아이다호 오클리 스테이크
그라우스 크리크 와드



자신에 관한 훌륭한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형제님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 기 가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가장 훌륭하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

“...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올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1899~1994년)
대관장,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6쪽;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6쪽.

못하다고 느낄 때,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약점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형제님이라면, 저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세이 브랜치, 14세, 콜로라도 그릴리 스테이크 그릴리 제4와드

도움을 얻기 위해 경전을 읽고 기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님이 경전을 주의 깊게
상고한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형제님을
도우실 것입니다.

조셉 치토크, 12세, 영국 런던 윈즈워즈 스테이크 캣포드 와드



저도 때로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더 큰
자신감을 얻고 더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에이프릴 플로레스, 17세, 필리핀 캣발로간 지방부
캣발로간 제1지방

리아호나와 독자들의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공식적으로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에게: 여러분의 대답을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및 여러분이 속한 와드와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지방부)명칭과 함께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5/05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4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cur-liahona-imag@ldschurch.org

대답은 2005년 5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학교에서 아이들이 제가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알고 저를
괴롭히고 놀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신권과 신권 열쇠의 회복을 기뻐함

기 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요셉 스미스서 2:69: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이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의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료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여러분은 회복된 신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년)
대관장: “주님께서 지상의 인간들이 하는 일을 승인해 주셨으므로 인간에게 위임된 권능인 신권의 회복과 진리를 마음껏 즐길시다.”(복음 원리, 401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저는 ... 성신권을 회복시켜 주신 영원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훌륭한 교회를 관리하는 신권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 그 권세가 축복과 병자의 병 고침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크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겸손한 사람들이 신권을 통해 고상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말씀할 때 신권을

보았습니다.”(“나의 간증”,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52쪽)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년)
대관장: “구세주 시대와 같이 거룩한 신권을 통해서 오는 모든 은사, 모든 은혜, 모든 권세와 모든 엔다우먼트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오늘날 말일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 병 고침의 권세, 그분으로부터 오는 나타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것을 통변하도록 하는 신권의 권세, 그리고 모든 은혜와 은사를 누리고 있습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 103쪽)



어떻게 여러분은 신권의 권세와 열쇠를 지닐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84:19~20: “이 대(대)멜기세덱신권은 복음을 전하고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의식을 집행할 때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신권은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의 권세를 통해 진리와 간증과 계시로 인도하는 성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콜린 케이 멘러브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 “의로운 신권 지도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축복할 권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 우리는 예언자와 신권 지도자들이 주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처럼 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성이 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매로서 가족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사업에서 신권 지도자들을 돕는 기회를 가족 있는 것을 기뻐합니다.”(“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에 동참함”, *Ensign*, 2002년 10월호, 46, 49쪽) ■



피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



젊은 성도들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시 켈리 불리는 자신이 강에 몇 번이나 빠졌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자 웃음을 터뜨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피하게 수영을 해야 하는 일은 피지의 수바 근처 작은 마을 나바투아바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도시나 학교, 혹은 상점에 가야 할 경우, 천천히 마을을 끼고 흐르는 강을 건너야 하므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다리(약 두 시간 거리)까지 걸거나, 힘들게 번 귀한 돈을 버스 요금으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강을 건너 다녀야 해요. 친구가 강 건너에 살거든요.”라고 열세 살 된 시켈리는 말한다.

강을 건너는 것은, 비록 기다란 대나무 몇 개를 엮어 만든 불안한 뗏목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는 했지만 제일 쉬운 방법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두어 사람이 넘을 경우에는, 교과서와 교복을 머리에 묶고 젖어도 되는 옷을 입고 수영으로 건너는 편이 더 빨랐다. 그들이 뗏목을 타도 어차피 물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회가 들어서서 회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다. 교회는 배를 제공했다. 회원들의 기분이 고양된 것을 보면 그 배는 비행기처럼 생각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 배가 있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을 건너는 게 너무 쉬워요.”라고 열두 살 된 리티아나 델라이가 말한다.

도움에 대해 행복해 함

나바투아바 지부의 배는 피지 나우소리 스테이크에서 청소년들과 교회의 다른 회원들을 돕기 위해 시도한 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 지역에서 십대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자리는 부모들조차도 찾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회원들이 스스로를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렇다면 회원들은 왜 그리 행복할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위해 많은



돼지 키우는 일을 돕는 것에서부터 교회 복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맨 왼쪽), 알리페레티 수구타(아래)와 같은 청소년 회원들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복

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은
스테인크

회원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나바투야바
지부의 청소년들(위)이
단합하도록 도와 주었다.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14세
된 마케레타 엘더는 말한다.

스테인크 지도자들은 영감을 받아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배 이외에도, 그
곳에서는 온실과 여러 개의 새로운 복지 농장 및
가축들도 돌보고 있다. 나바투야바에 있는
청소년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

함께 잡초를 제거함

나바투야바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소리
가운데 하나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로부터
나는 소리이다. 스테이크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트랙터가 그러한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지부에 있는 17명의 청소년은 트랙터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트랙터가 없었다면,

나바투야바 회원들은 2에이커의 농장을 손으로
경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트랙터가 농장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 회원들은
타로와 타피오카 같은 작물의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농장 일을 돕습니다. 청소년들은
잡초를 뽑고 씨를 뿌리거나 어른들이 일을 할 때
간식을 가져옵니다.”라고 열다섯 살 된 쿨리
오라바누아는 말한다.

“저는 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많은 면에서 우리 가족을
돕습니다.”라고 열네 살 된 마카
바이케이레와는 말한다.

농장이 주는 축복은 다만



식품을 얻는 것만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식량을 재배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운다.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지부의 청소년들을 하나가 되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배우도록 도와 주었습니다.”라고 18세 된 톨리아 티나이몰리쿨라라는 말한다.

그러나 쿨리가 말한 바와 같이 “트랙터와 농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갖도록 도와 줍니다. 저는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축들과 함께 생활함

농장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청소년들에게 돼지와 닭들을 돌보는 것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다.

지부는 120마리의 병아리, 64마리의 닭, 그리고 4마리의 돼지로 시작했지만 곧 닭장을 확장할 예정이다. 가축들은 지부와 스테이크 회원 별로 나누어질 것이다.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먹을 것이지만, 그것은 어느 것 못지 않게 흥미로운 일이다.

병아리들은 귀엽고 돼지들은 재미있다. 청소년들은 잡히려고 하지 않는 돼지를 잡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으로 배운다.

기운을 북돋아 주었음

일부 국가에서는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주제로 다루어질 때,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과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나바투야바의 청소년들에게, 교회 복지는 돼지와 트랙터, 닭과 농사일을 통해 그들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문제의 바다에 던져진 바위와 같습니다. 그들은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물에 뜨는 코르크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에 빠지게 될 때 문제를 극복하여 다시 행복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 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5쪽.

변화시키고 있다.

배만 하더라도 그저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수단 이상의 것이다. 승객 당 몇 센트씩을 받음으로써, 지부는 리티아나 가족이 배를 관리하도록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강 건너에서 배를 타야 할 사람이 호루라기를 불면 교대로 배 젓는 일을 한다.

“그것은 저희 가족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학용품과 식품을 사도록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번 돈에 대해 십일조를 냅니다.”라고 리티아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나바투야바에 있는 성도들만이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 복지와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통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견디어 내도록 방안을 제공하신다. ■



교 회 소유의 온상(위)과 배(아래)를 통해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은 이 청소년들이 교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느끼는 방법들을 변화시켰다.



효율적인 장로 정원회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스테이크장과 감독은 강력한 장로 정원회에 의존한다.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 시리즈의 네 번째 기사.

데일 이 밀러 장로
철심인 정원회

현 대 경전은 신권 소유자들에게 이사가야 예언한 대로 “또 다시 시온을 일으키”(교리와 성약 113:8; 이사야 52:1, 8 참조)하도록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경전은 또한 장로들이 “상임 교직자”(교리와 성약 124:137)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스테이크장과 감독이 교회의 사명, 즉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죽은 자를 구속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되도록 권유하는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장로 정원회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정원회를 만드는 것은 커다란 과제입니다. 정원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 임무를 수행할 활동 회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같이 보입니다. 성인 남자 개종자들은 자주 이사를 가 버리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련 장로들의 수가 종종 활동 장로의 수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충실한 장로들은 종종 여행을 하거나 직장이나 교육적인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체사로 부름 받거나 정원회 밖에서 행할 중요한 임무 지명을 받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어떻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로 정원회가 힘차게 발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스티븐 엘 리차즈(1879~1959년) 부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원회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과를 배우는 반입니다. 둘째, 형제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셋째, 봉사 단체입니다. 그 안에서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은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참된 형제애를 키우며, 그리스도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합체이며 그들은 우리 사회의 다른 어떤 남성들의 조직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유익을 얻습니다. 정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개인을 격려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¹

리차즈 부대관장의 정의에 따르면, 강력한 정원회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정원회 회원들 간에 형제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2. 기본적인 교리와 신권의 의무를 배우십시오.
3. 정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봉사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다음은 이러한 정원회를 만드는 활동을 완수하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몇 가지 제안입니다.

1. 모든 정원회 회원들 간에 형제의 유대를 강화하십시오.

지명 받은 모든 정원회 회원들을 포함시키십시오. 상황 여하에 상관없이 아무도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정원회





회원 정원회에 대해 관심을 잃을 수도 있으나, 정원회는 결코 그에 대해 관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원회는 항상 회원 각자에 대해 끊임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활동 회원을 무시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고 연락을 끊는 것은 신권 소유자로서의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²

방문, 방문, 방문하십시오. 온 세상에 있는 장로 정원회 회장단은 그들의 개인적인 방문이 모든 회원들을 정원회의 형제애로 단합하게 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문은 진정한 우정과 순수한 관심의 행동으로 보여질 때 가장 잘 영접될 수 있습니다. 종종 정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하기도 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축복이 그 가정에 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각 회원에게 일을 지명하십시오. 고든 비 항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각 정원회는 모든 회원에 대한 형제애로써 일을 해야 그 목적이 실현되는 곳입니다.”³ 그것은 새로운 모든 개종자(및 정원회 회원)에게 책임이 필요하다는 그의 권고에 적합한 말입니다. 각

회원들 간에 형제애로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일은 효율적인 정원회를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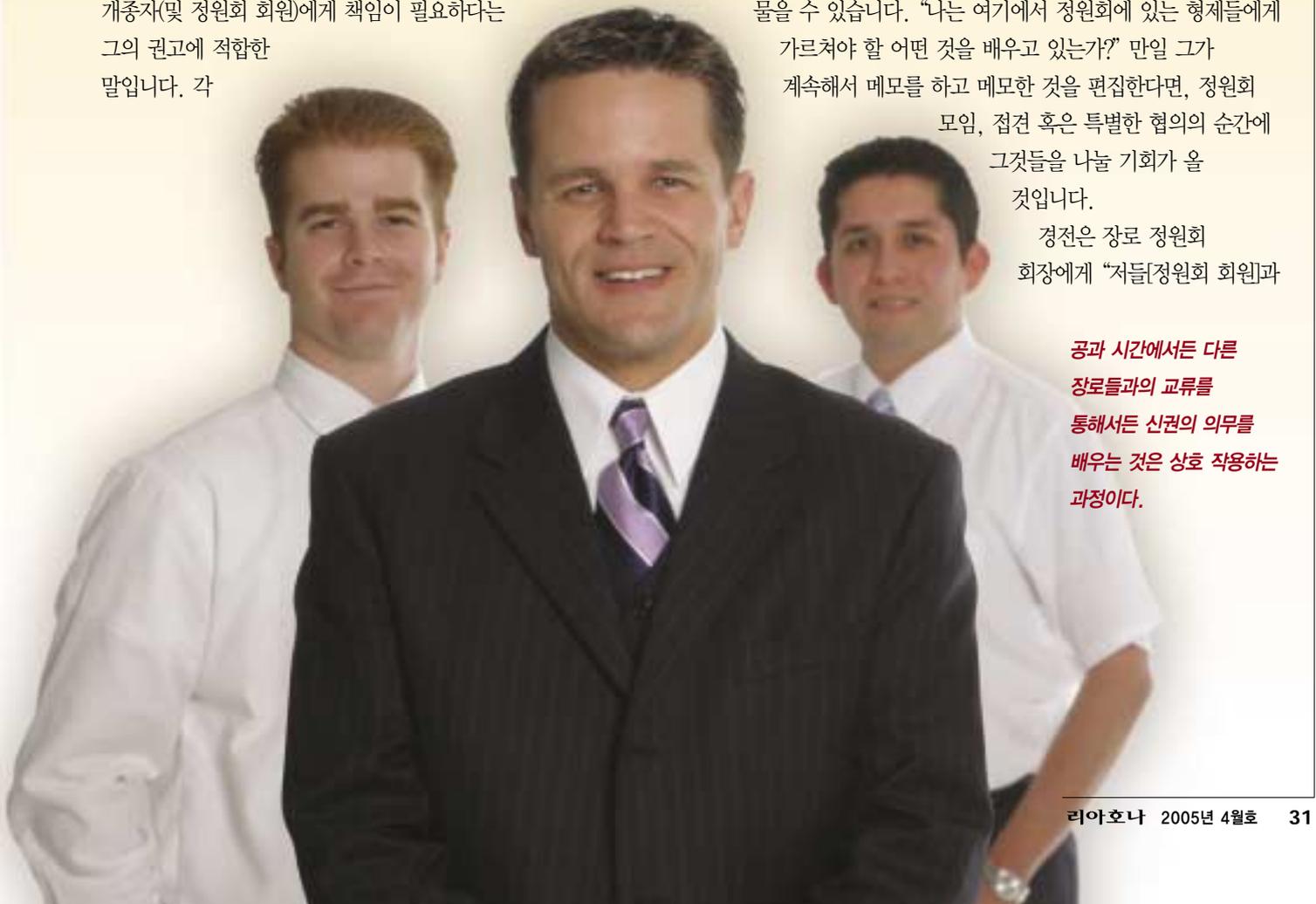
회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오는 지속적인 영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2. 기본 교리와 신권의 의무를 배우십시오.

인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장로 정원회 회장은 자신이 배우는 것을 정원회 회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영의 가르침이 그의 정신과 마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스테이크장단, 감독단, 지명 받은 고등 평의원과 함께, 혹은 지도자 모임에서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정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르쳐야 할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가?” 만일 그가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메모한 것을 편집한다면, 정원회 모임, 접견 혹은 특별한 협의의 순간에 그것들을 나눌 기회가 올 것입니다.

경전은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저들[정원회 회원]과

공과 시간에서든 다른 장로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든 신권의 의무를 배우는 것은 상호 작용하는 과정이다.





신권 정원회에 대해

“우리의 신권
정원회가 정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힘의 닻이 되고, 회원
각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럽게 말 할 수
있게 될 때, 그
때야말로 놀라운 날,
주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권
정원회 회원입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 역시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약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일함으로써 당황함이나
두려움 없이, 언제
불어 닥칠지도 모르는
적대 세력에 대항해
굳건히 견디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복지에 관한
신권 정원회의 책임”,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31~132쪽.

더불어 회의를 열어 성약에 따라 저들을
가르”(교리와 성약 107:89; 또한 교리와 성약
20:38~45 참조)하도록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의를 여는 것은 가정 방문이나 주기적인 접견
때에 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혹은 정원회
전체와 더불어 그룹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정원회
회원의 관심사와 정원회 참석은 부분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기능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맺은 성약을 존중하지 않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공과에서 배운 가치관에 근거하여
참여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회원들의 필요 사항과
참여를 염두에 두고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들은 또한 교리와 성약 50편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권능과 인도로
가르쳐야 합니다.(10~25절 참조) “그런고로
전파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는 서로
이해하니, 둘은 다 덕으로 인도되며

함께 기뻐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0:22)

3. 정원회 전체가 참여하는 봉사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정원회 회원들 간에 세상적인 자급 자족을
이루십시오.** 대관장단 제1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1871~1961년) 부대관장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감독이 모든 궁핍한 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물질적인 문제를
돌보아 준다면, 신권 [정원회]는 불행에 처한
형제의 필요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해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술가나
기술자가 직장을 잃었을 경우, 감독은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신권
정원회는 그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그가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지켜보고 그가 신권의 임무를

**정원회 회원들은 “모든 사람에게 힘의 닻”이
되어야 한다고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했다.**





장로 정원회에 대한 감사

저의 부친은 어머니에게 구애할 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부친은 장로로 성임되어 잠시 활동하다가 교회 참석을 중단했습니다.

그분은 근 50년 동안 교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했으며 82세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채 혼자 살 때, 어느 일요일 아침 두 명의 형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님을 신권회에 모시러 왔습니다.”

부친은 누군가 자신을 돌보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제 부친을 교회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분의 활동적인 세 명의 아들이 결코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신권 정원회 회원들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훌륭한 예였습니다.

데일 이 밀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플로리다 포트 라더데일 스테이크 플랜테이션과 데이비 와드의 회원들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쌓인 쓰레기를 (사슬톱으로) 치우는 일을 돕고 있다.

활동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⁴

실질적인 가정 복음 체계를 세우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2003년 1월 11일에 있었던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서 귀중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는 규모가 작은 교회의 단위 조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의 권고는 작은 그룹이 가정 복음 교육을 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가정 복음 교사들은 필요 사항에 따라 지명되어야 하며, 우선 새로운 개종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가정 복음 교육은 때에 따라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회원들로 하여금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도록 돕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당히 많이 한 것입니다.”⁵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대관장은 가정 복음 교육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시대의 정신은 세상적입니다. ... 그러나 주님은 옛 프로그램을 새로운 형태로 알려 주셨으며, 그것은 세상에 온전한 생활과, 참된 가족의 생활, 가족의 상호의존성 등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를 가장으로서의 정당한 위치로 되돌아가게 해 주고, 어머니를 사회 생활과 직장으로부터 가정으로 데려다주며, 자녀를 거의 모든 시간을 흥미를 위해 시간을 보내는 일에서 가정으로 되돌아가게 해 줍니다.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은 중요한 활동인

가정의 밤과 더불어,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기만 한다면, 세상의 나쁜 영향을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⁶

이것들은 장로들이 강력한 정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끊임없는 권고를 들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교회 지침서, 경전, 살아 있는 예언자들의 지난 권고 및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계시의 열쇠와 권리에서 오는 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⁷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 있는 예언자들과 지역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영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로 정원회는 “시온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하는 위대한 일에 대해 존경을 받으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

1. Conference Report, 1938년 10월, 118쪽.
2. 왕같은 신권(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1975년, 134쪽.
3. “신권 정원회의 복지 책임”,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31쪽.
4.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130쪽에서 인용.
5. “기본 단위 프로그램”,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7~10쪽 참조.
6. Conference Report, 1965년 4월, 61쪽.
7. “회복”,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3년 1월 11일, 1~4쪽.



가족을 강화함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계명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한다.”¹

어린이들이 덜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음

대관장단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결혼의 목적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성인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부부 관계로 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가족에게 또 하나의 위협적인 도전은 어린이들이 덜 귀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자녀를 더 적게 가집니다. 낙태는 부부들이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임신의 사분의 일 정도가 낙태로 끝이 납니다.”²

파괴적인 관습

낙태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낙태는 이기적이며 출산의 능력을 문란하게 사용하도록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 만연된 관습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기혼 부부에게 입양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1991년에 대관장단은 낙태에 관한 포괄적인



자 녀를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은
확실히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커다란
희생과 비이기심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관장단은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드문 경우들”을 인정하는 반면에, “그러한 것이 낙태에 대한 자동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도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이거나 또는 사회적 편리성 때문에 낙태를 하는 파괴적인 관습을 버리도록 조언했습니다.”³

자녀를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은 확실히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대개 커다란 희생과 비이기심에 따른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기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는 축복은 그분이 주시는 축복 중에서 가장 달콤한 것입니다. 실제로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신성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혼외 출산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 못지않게 주님은 우리가 오직 결혼 관계 내에서만 우리의 순종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성적 문란함을 저지하고 자녀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가족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사생아를 낳는 것은 전통적으로 당혹스럽고 치욕적인 것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이사야 5:20 참조) 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혼외 출산에 대한 오명은 크게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뿐만 아니라, 사생아의 출산은 아기에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결부시킨다는 사실을 연구원들이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자녀에 비해 사생아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상처로 죽거나, 아니면 청소년 범죄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큼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된 어린이는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들은 배움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게 되고, 더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 정부 보조를 받을 가능성도 적습니다.⁴ 자녀를 이 세상으로 데려와서 주님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축복입니다.

땅에 충만함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후,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창세기 1:28)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채우다”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인구 과잉과 그로 인해 생기는 황폐화에 대한 경고를 들어 왔습니다.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극도의 인구 밀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전세계의 인구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세계 인구가 정점에 달하게 되고 그 이후는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⁵

인구 밀도보다 더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이 현재와 미래의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충만하고 충분하여 남는 것이 있나니 ... 만일 어느 사람이 내가 만든 것을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나의 복음의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리라.”(교리와 성약 104:17~18) “빈곤과 기아를 일으키는 원인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행복을 위협하는 적은 자녀 출산이 아닙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님은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땅에서 할 일을 구하지 않는 것이며,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⁶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Challenges Facing the Family”,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데이비드 포피노, 바바라 데포 화이트헤드, “Marriage and Children: Coming Together Again” 인용, *The State of Our Unions 2003: The social Health of Marriage in America*에서, National Marriage Project(연례 보고, 2003년), 10~11쪽.
3. “Church Issues Statement on Abortion”, *Ensign*, 1991년 3월호, 78쪽 참조.
4. 인터넷, www.heritage.org/research/features/familydatabase/results.cfm?key=463 참조.
5. 니콜라스 에버스타드트, “The Problem Isn't Overpopulation and the Future May Be Depopulation”, *Marriage and Families*, 2000년 4월호, 9~10쪽 참조.
6. “가족”,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17쪽.

원쪽, 모델 사진 촬영: 헬트 시 앤더슨; 그림: 니콜라스 엠 프리아이, 이담과 이브, 복사 금지, 오른쪽, 모델 사진 촬영: 크레이그 데이몬드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주디스 에이 디니

나는 침례를 받은 후 4년 동안 교회 활동이 저조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침울한 나날을 보냈다. 남편 아이언은 멀리 떨어진 바다에 있었고, 나는 두 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집에 남았다. 남편은 잠수함에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나라 반대쪽 끝에 있는 건선거(선박을 수리하거나 청소할 때 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구축물)에서 지냈다. 6주 동안 남편은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우리 내일 항해를 할거야.” 그러나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 듯했고, 약속했던 항해는 계속적으로 연기되었다.

나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였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어 주었다. 나는 항상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무례를 범하기도 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든지 전화를 걸면 그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내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아이언이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했다. 그럼에도 나는 그들의

아이언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그와 함께 교회로 갔다. 선교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앙이 실제로 성취될 지 시험해 보겠다는 소망을 결코 갖지 않았다. 나는 영적으로 매우 연약했다.

어느 날 저녁 아이언과의 전화 통화에서 잠수함이 다시 말썽을 일으켜 집으로 올 수 없다는 말을 들은 나는, 지독한 외로움으로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나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 날 저녁에 잠 잘 준비를 하면서, 전에는 느껴 보지 못했던 강하면서도 기분 나쁘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냄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해주었다. 잠시 생각한 후에야 나는 그것이 내가 침례를 받았던 예배당을 상기시켜 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따뜻하고 편안한 행복감이 가슴에 젖어들었으며, 교회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소망이 일었다.

나는 나의 가정 복음 교사인 토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곧바로 토니와 부인인 로지가 집으로 왔으며, 우리는 그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근심은 사라졌다.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아이언의 전화가 몹시 기다려졌다. 이번에 그는 의기소침하기보다는 흥분해 있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놀랍게도 자신이 집에 오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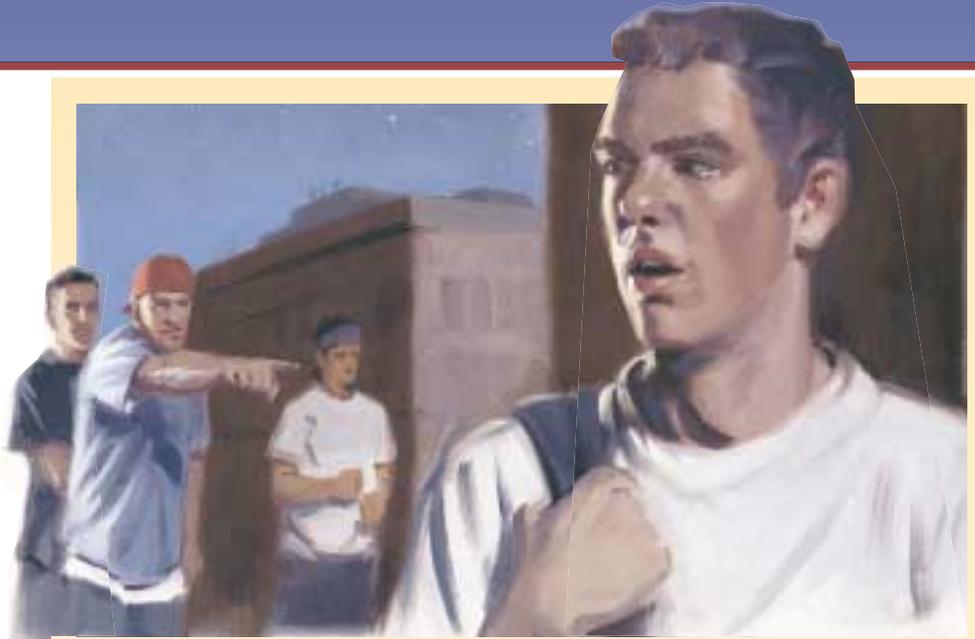
그 다음 일요일에 토니와 로지는 나와 아이들을 교회에 태워다 주었다. 나는 우리 지역으로 다시 온 선교사를 보고 놀랐다. 그는 전에 아이언이나 내가

교회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 다른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 집에 왔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었다. 그는 이제 따뜻하게 나를 맞아 주면서 아이언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 우리 지역으로 다시 왔다고 말했다. 나는 회의적인 생각에 웃었지만 다음 주에 아이언이 마침내 집으로 왔다. 그는 약속대로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 참석했다. 패스켓 장로님이 처음 참석한 그에게 다가가서 동반자인 브라운 장로님과 함께 토론을 가르칠 약속을 했다. 2주도 안 돼서 아이언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수락했다.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에는 한 달도 채 안 걸렸으며, 얼마 후 선교사들은 우리 지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 기간 동안 성령과 지부 회원들의 사랑이 흘러 넘쳤다. 우리는 그 때 복음대로 살 것이라면 온전히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다. 아이언은 침례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청남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나는 초등학교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충만하고 활기찼다.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의 가족은 두 명에서 아름다운 다섯의 자녀로 늘어났다. 1982년 우리는 영국 런던 성전에서 토니와 로지가 참석한 가운데 인봉을 받았다.

그 때 이후로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었다. 살면서 좋은 시절도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기로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은 없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진짜' 집을 찾은 것이다. ■

주디스 에이 디나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선교부 러워 지부의 회원이다.



나는 영의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티에리 호츠

여 일곱 살쯤 되었을 때, 어느 날 나는 영화를 보기 위해 갔던 도시의 외진 곳에서 나의 사촌을 만났다. 그 후에 사촌은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집에 가고 싶어서 거절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둠 속에서 나는 집으로 향했다. 이 때는 내 인생에서 자신감이 별로 없었던 시기였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나는 걸으면서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졌다

축구장을 지나고 있을 때 나에게 말하는 작은 음성이 들렸다, “티에리, 다른 길로 가라!” 나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 음성을 무시했다. 몇 미터를 더 가자 그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렸다: “티에리, 다른 길로 가라!” 나는 무서워서 그런 것뿐이라고 다시 한 번 나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계속 같은 쪽의 길을 뛰어갔다. 갑자기 세 번째로 그 음성이 들렸다 “티에리, 다른 길로 가라!” 나는 그 음성에 따르지 않았다.

그 때에 다음 모퉁이에서 네다섯 명의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길 반대편으로 뛰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 무리가 나를 보고 가진 것을 내놓으라며 공격했다. 나는 자신을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땅에 넘어져 의식 불명인 체했다. 그들이 모두 떠나자 나는 가까스로 일어나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뛰어갔다.

이 사건이 있는 지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나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알려 주는 음성도 역시 들었다. 물론 지금은 내가 세 번씩이나 경고를 받을 필요는 없다.

나는 청남이었을 때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성신의 음성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 음성은 나에게 매우 익숙하다. ■

티에리 호츠는 프랑스 니스 스테이크 비트볼레스 와드 회원이다.

신앙으로 지은 집

호세 루이스 다 실바

1996년 아내와 내가 침례를 받기 전 날, 가족과 친구들은 침례를 못 받게 하려고 애를 썼다. 친척들은 우리가 교회 때문에 가족을 저버렸으니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로 호되게 비난을 했지만, 우리는 그러한 핍박을 견뎌 냈다. 결국 친구들은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실직에 병까지 얻었다.

그러나 나의 가족과 나는 교회에 참석할 때마다 더 좋은 느낌을 받았다. 매 공과마다 더 강한 영을 느꼈다. 회원들은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감독님은 우리집에 오셔서 우리 가족을 격려해 주셨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교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도 배웠으며 영원한 관점도 갖게 되었다. 모든 것이 우리를 거역하는 듯이 보였지만,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새로운 개종자였던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던 아버지의 집으로 감독님이 방문 하셨다. 그러나 아버지는 감독님을 내쫓으셨다. 아버지는 교회 회원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은 전화로 우리와

접견을 하라는 영감을 받으셨다. 감독님은 우리 가족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당분간 회원과 선교사들이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있으며,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끈고 좁은 길로 간다면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직장 사정으로 우리 소유의 집으로 이사할 수가 없었다. 나는 전과 같은 좋은 직장을 찾을 수도 없었다. 나는 급여가 많지 않은 직장에서 잠시 일을 하면서 십일조와 헌금을 내고, 교회에 참석하며, 필요한 음식을 구입할 수 있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참으로 행복했다.

성전 인봉을 받던 날 우리의 두 아들, 당시에 두 살이었던 루이지와 한 살이었던 루카스가 인봉실에서 의식을 받기 위해 우리 손 위에 그들의 손을 놓았을 때,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때 본 아름다운 광경과 놀랄 만한 영의 임재하심, 그리고 온갖 노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었다는 느낌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지만, 몇 가지는 개선되었다.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삼촌들은 교회를 더 이상 비판하지 않았으며, 조부모님은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우리는 모범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내가 세미나리를 가르치고 감독단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아내는 항상 나를 지지해 주었다.

침례를 받던 해에 한 친구가 우리에게 약간의 돈을 빌려 주어 우리는 그의 가족과 우리 가족을 위해 건물 부지를 구입했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집을 갖는 꿈을 꾸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듣고 노임과 재료를 계산해 보았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선교 사업을 하며, 회원들의 방문을 받을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후 나는 최근에 와드에서 침례를 받은 조엘 형제님과 더 친하게 되었다.



그는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 어느 날 우리가 어떤 봉사에 관한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조엘 형제님이 나에게 말했다. “호세 루이스, 우리가 형제님의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나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아내에게 그 말을 할 때까지 참았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며칠 후 나와 자기 가족을 위해 땅을 구입했던 친구는 내가 부지 전체를 가져도 되며 나중에 돈을 지불해도 된다고 말했다. 나는 건축 자재를 구입할 수 있게 해 주는 직업은 여전히 갖지

못했지만, 주님이 방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몇 주 후 나는 큰 회사에서 일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집을 짓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곧 실현되었다.

조엘 형제님이 보여 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는 내 가족을 위해 집을 짓는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토요일에만 일했다. 집을 짓는 데 10 개월이 걸렸으며, 그것 때문에 교회 일에 방해가 된 적은 없었다. 다른 교회 회원들도 우리를 도와 주었다. 아버지도 여러 차례 도우려 오셨는데, 그로 인해 아버지는 교회 회원들을 더 잘

아시게 되었다. 아버지는 특히 조엘 형제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우리의 가정 복음 교사가 되었다. 어느 토요일에

아버지는 조엘 형제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 칭찬을 하셨다.

내가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에게 일 샀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대답하셨다. “모르겠는데.”

“한 폰도 안 주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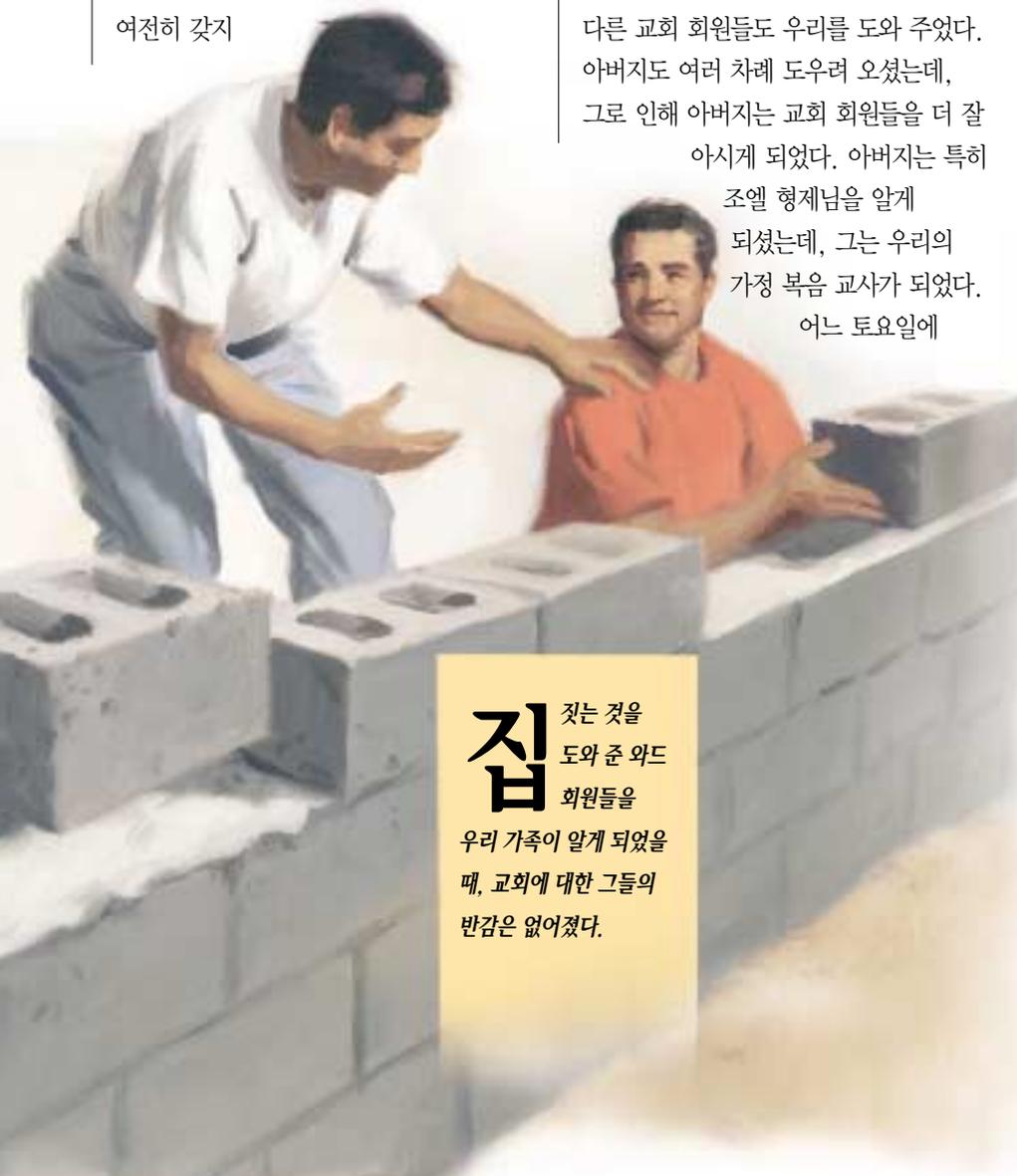
나는 아버지께서 목이 메어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는 감독님과 선교사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시고는 당혹해 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교회 회원들이 우리를 항상 잘 대해 주는 것을 보셨다.

집을 완성한 날, 대부분이 교회 회원인 16명의 남자가 그 곳에 있었다. 교회 회원이 아닌 나의 친척들과 친구들은 그 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집을 짓는 동안 동생과 동생의 약혼녀는 선교사와 토론을 했다. 그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 침례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혼식 날, 나는 또 하나의 기적을 목격했다. 그 날 네 명의 선교사와 많은 교회 회원들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산을 움직이신다. 오늘 나는 우리 집의 벽을 주님이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아신다는 증거로서 바라본다. 물론 우리 앞에는 많은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가 충실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낼 것이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

호세 루이스 다 실바는 브라질 상파울루 파울로스 스테이크 자르담 프레지던트 두트라 와드 회원이다.



집 짓는 것을 도와 준 와드 회원들을

우리 가족이 알게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그들의 반감은 없어졌다.

균형 잡힌

삶에서 매일 요구되는 일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은 지상 생활의 가장 커다란 책임 중의 하나이다.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강해졌고 많은 교훈을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더라면 그런 고통 중 많은 부분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브렌트 엘 탐

몇 해 전, 휴가 중에, 우리 가족은 차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수리공이 도착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었을 때 매우 안도할 수 있었다. 카뷰레터를 약간 수리해서 개솔린과 산소가 더 잘 섞일 수 있게만 해 주면 되는 문제였다.

그 이후로, 나는 많은 기회를 통해 적절한 균형은 기계 정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인적인 우선 순위들을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삶의 목적지와 방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육체적, 감정적, 영적인 붕괴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삶에서 매일 요구되는 일들을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은 지상 생활의 가장 커다란 책임 중의 하나다. 우리 모두는 종종 시간과 관심을 쏟을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다. 복음의 원리대로 충실히 살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쏟게 되면 우리 삶의 섬세한 균형이 깨지고 개인의 평화와 가족의 조화가 침해 받게 된다.

나의 아내 웬디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 완벽한 교회 회원, 완벽한 이웃이자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 그녀는 기쁨을 느끼는 대신, 종종 압도당하고 낙담했다. 좋은 의도를 가진 지도자와 친구들이 그녀가 충분한 신앙을 가진다면 이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자 그녀의 좌절감이 더 심해졌다. 우울증과 불안감이라는 개인적 위기를 겪은 후야 그녀는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나는 아내의 경험이 독특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칠십인 명에 관리 역원인 딘 엘 라슨 장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노력하고, 자신이 이해하는 대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환멸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않으며, 좌절하는 회원들을 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만나게 됩니다.”¹

베냐민 왕은, 심지어 선을 행할 때에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웁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모사이아서 4:27)

세상적인 일의 균형을 유지함

세상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불균형은 오래 전부터 있어 온, 우리가 사는 물질주의 팽배의 시대에 더욱 심해지는 듯 보이는 문제이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블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아마 재물을 모으려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보다 인생에서 균형의 원리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² 더군다나, 수많은 선하고 훌륭한 동지들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기적으로든 비이기적으로든, 우리는 벌고 쓰며, 동분 서주하고, 바빠 움직이지만, 나중에서야 우리가 감정적, 영적인 힘을 낭비하고 결국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어 버렸음을 깨닫는다. 물문경에서 예언자



삶

야곱은 이사야의 말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너희는 헛된 것을 위하여 돈을 버리지 말며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니파이이서 9:51; 이사야 55:2 참조)

우리는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쉽다. 그러나 모임과 활동을 더 적게 가짐으로써, 더 의미 깊은 봉사를 하고 보다 실질적인 영성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1895~1985)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그가 “조용하고, 온건한(sane) 삶”³이라고 표현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셨다. 더 최근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단순하게 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⁴라고 말씀하셨다. 외부의 분주한 활동들로 인해 내적인 선함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는다.

세상적인 일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종종 선하고 바람직한 수많은 일들 간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인다. 다양한 교육적 문화적 경험은 우리 자녀들의 재능을 발전시키고 성장을 가져오는 데 귀중한 것일 수 있다.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는 기회는

우 리 모두는 종종 시간과 관심을 쏟을 일이 너무 많다고 느낄 수 있으며, 우리 삶의 섬세한 균형이 깨지고, 개인적인 평화와 가족의 조화가 침해 받기도 한다.

우리에게 풍요롭고 보람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한 동기와 활동들을 고려할 때조차도, 우리는 벨라드 장로님의 다음 권고를 기억해야 한다.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할 때 균형을 잃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중요한 것을 너무 소홀히 해도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⁵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추가의 스포츠, 음악 레슨, 혹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들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조용하고 온건”하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정신없이 바쁜 이 말일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이기적인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일들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구세주께서도 이따금 그분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무리들로부터 잠시 벗어나 계셨다.(예를 들면, 누가복음 5:16 참조) 분명히 이것은 그분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적인 일들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과 자원, 혹은 에너지를 쏟을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활동들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휴식하며 우선 순위들을 재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죄스럽거나 이기적이라고 느낄 필요는 없다.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의 균형을 유지함

세상적인 일의 불균형이 우리의 정서적인 화평과 영적인 화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불균형도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적절한 영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완전을 성취하기를 기대치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는 사실상 진정한 복음 생활을 방해하며 영성을 직식시킨다. 완벽이라는 자신의 선입견에 도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당한 자기 비판과 죄의식으로 자신을 위협하거나 완전에 이르려는 비현실적인 노력으로 지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힘 이상으로 빨리 달리지 말라는 베냐민 왕의 권고는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영적인 것에서도 의미심장하다. 베냐민 왕의 권고에서의 열쇠가 되는 말은 “부지런[하라]”이다.(모사이야서 4:27 참조) 우리는 많은 영적인 성장이 갑자기 일어나기보다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이 주는 고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굉장하고 특별한 일을 행하도록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어제 한 것보다 오늘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소망, 결의, 방향도 지켜보신다.

영적인 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자주 영적인 발전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 마음의 소망과 삶의 방향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해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고무적인 권고를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만족과 악마의 불화,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자신에 대한 혐오를 분명하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돌아서게 하기 위해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것을 취하고 두 번째 것은 멀리해야 합니다.

“... 우리는 완전에 이르는 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조용히 좀더 정직하게 성찰하여 목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장부 계원이므로 장부를 확인하는 회계 검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체를 지키지 못한 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하시킬 때 기뻐합니다. 자기 경멸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늘에는 이러한 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물론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실수를 항상 거듭하는 것이 인생의 경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⁶

영적인 균형에 대한 장애물 중의 하나는 “가짜 자립”이다. 로버트 엘 밀렛은 우리가 자신의 제한된 능력에 너무 많이 의지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정의했다. 그는 발전하지 못하고 죄의식에 짓눌려 있는 일부 교회 회원들은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배가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속도로 문제가 제거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빨리 달리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 결과는 일종의 감소하는 영적인 보상이다. 지치고 다시 좌절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항상 더 열심히 많이 일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더 그렇다. 종종 해답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런 후 주님께 의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⁷

속죄를 적용함

아내가 충실히 일한 뒤 좌절과 낙담을 겪는 악순환의 과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주님의 영은 아내에게 그녀가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삶에서 속죄가 완전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기쁜 일이 아니라고 속삭여 주었다. 우리가 속죄의 유익을 취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용기, 신앙, 감사를 보여 준다. 속죄는 죄를 회개할 수 있게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구세주의 은혜를 받도록 해 준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 준다. 그렇게 해서 구세주는 우리의 짐을 나누어 지시고, 우리의 많은 부족한 점을 보충해 주신다.(마태복음 11:28~30; 이더서 12:27 참조)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을 잃은 사람들의 삶에는 평화가 전혀 없다.(마태복음 8:26)

그들은 낙담의 바람과 좌절의 폭풍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속도를 늦추어 제 힘에 겨우게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마치 구세주께서는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신 것처럼(마태복음 8:26 참조), 평온케 하고 위로하며 인도하는 그분의 영향력으로 우리 삶을 축복하실 수 있다.(니파이서서 3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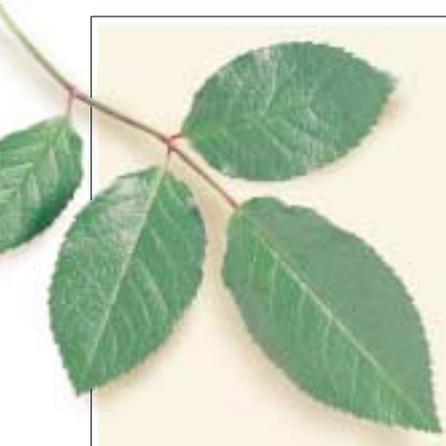
브랜트 엘 탐은 일리노이 피오리어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주

1. “My Peace I Give unto You”, AMCAP Journal, 1986년, 12~13쪽.
2. “인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유지함”,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15쪽.
3. “천국의 발견”, 성도의 빛, 1972년 4월호, 7쪽.
4. “보조 조직의 교리상의 기초”,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8쪽.
5. “인생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데 균형을 유지함”, 성도의 빛, 1987년 7월호, 16쪽.
6. “비록 내가 연약하나”, 성도의 빛, 1977년 2월호.
7. Life in Christ(1990년), 47~48쪽.

속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할 수

있게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구세주의 은혜를 받게 해 준다. 그 은혜는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을 극복할 힘이 없을 때 우리를 강하게 해 준다.



작은 지부의 강한 뿌리



티나 도브라브크는 슬로베니아의 십대 중 한 명이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고 있다.

제니안 젠슨
교회 잡지

숲으로 걸어 들어가 그 정적에 귀 기울여 보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들이 주는 고요한 경이로움을 느껴 보라. 높고 굳세고 강하게 서 있는 나무들의 모습에 경탄해 보라.

요셉 스미스는 이들처럼 숲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세상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 생각할 수 있고, 그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필요했다.

요셉 스미스는 미국 북동부의 뉴욕에서 첫 번째 시현을 보았다. 그러나 이 숲들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에 있다. 청남 청년들은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 곳에 모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들은 응답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 응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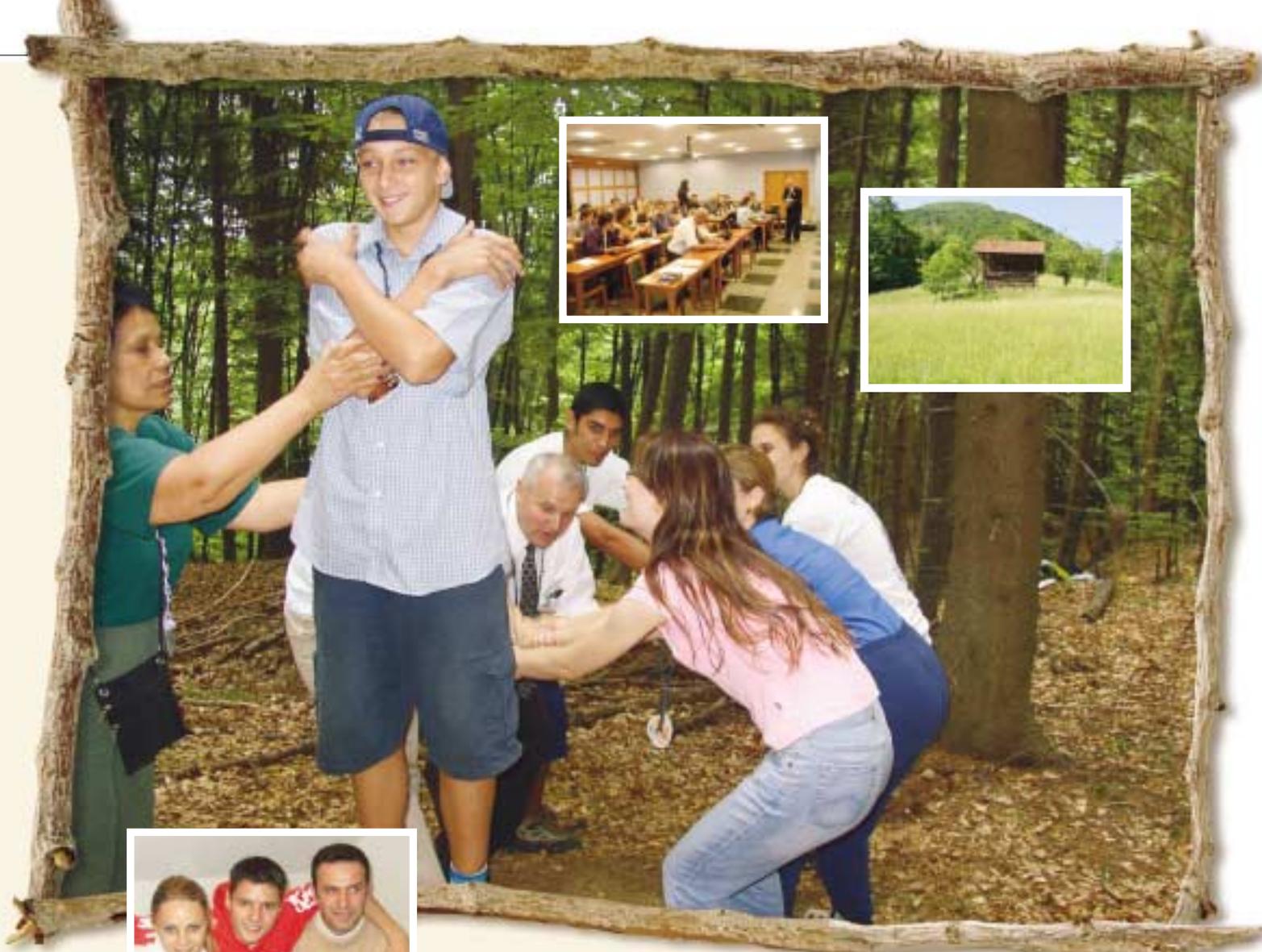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1991년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이탈리아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1990년대 초에 이 지역에 처음 왔다. 그 후, 슬로베니아에는 세 개, 크로아티아에는 일곱 개의 교회 지부가 세워졌다. 이 곳에서 교회는 아직 집회소를 지을 만큼 성장하지는 않았으나 이 일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회원들의 대부분은 청남 청년이며, 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모여 결합된 간증에서 힘을 찾는다.

혼자 섬

이 작은 지부들에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외로운 일일 수 있다. 크리스티나 메스트로브가 크로아티아 스플리트에 있는 지부 모임에 참석할 때, 때때로 참석자는 그녀의 어머니와 선교사들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제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가 되려고 계속





노력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안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페트라 카라클라이는 가족들이 그녀의 믿음을 이해하게 될 날을 고대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제가 일요일 모임에 나가는 문제와 교회에 대한 제 믿음의 일부에 대해 가족 중 몇몇과 부딪히게 돼요.”그러나 그런 후 페트라는 살아 남는 것에 대한 자신의 공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알아내세요. 그렇게 한다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더 낫게 변할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여러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사랑스런 자녀입니다.”

티나 도브라브크는 최근에 슬로베니아 첼예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는 개종 후에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가족의 지지 없이 복음대로 사는 것이 종종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저희 집에서는 음식을 축복하거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저는 제 가족이 언젠가 행복을 찾고 복음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티나는 지부에서 활동 지도자로 봉사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서야만 한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떠났다. 최근에 개종한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의 루샤 크라니크는 이렇게 말한다.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에서(위), 청소년들은 서로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왼쪽 삽입 사진: 시몬 스테바노비크(가운데)는 부모님과 복음을 나누고 있다.



청소년 대회에서(위), 청소년 대회에 참석한 십대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공통으로 갖고 있었다. 그들은 대회가 열렸던 숲 속의 나무들처럼 강하고 굳세게 되기를 희망한다.

“교회에 들어 온 후, 저는 옛 친구들과 헤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최선은 그들을 떠나 회원 및 선교사들과 계속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일어서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에게서 힘을 받는 것처럼, 청소년들도 함께 모임으로써 힘을 얻는다. 많은 청소년들이 처음 참석한 대회인 최근에 열린 청소년 대회에는, 47명의 청소년이 함께 모였다. 이들은 영어, 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복음이라는 언어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페트라 카리클라이크는 그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 청소년 대회와 그 밖의 다른 활동들로 인해 강화되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강합니다. 교회에 제 형제와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축복 받았다고 느낍니다.”

루샤 크라니크는 복음 안에서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교회 회원이 된 것과 제 옆에 친구들이 있는 것에 감사해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한다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신들과 함께하자고 종종 권유한다.

첼레의 시몬 스테바노비크는 친구 및 가족들과 복음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부모와 친구들을 격려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친구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새로운 개종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팔로

잡싸 안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우정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잃는 일이 없도록 보살피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교회 현황,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4쪽.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시몬은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언젠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것을 고대한다.

슬로베니아 류블라나의 아바 주파시크는 다른 사람들이 침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단지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침례를 받은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나요. 우리는 새로운 회원들을 도와야 해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강한 모습으로 남음

여러분에게 강한 뿌리가 있고 주변 나무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이 숲에는, 가끔 폭풍이 몰아치고 도전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 청소년들은 폭풍과 싸우는 것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일임을 안다.

슬로베니아 크란의 데보르 마는 “승리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일어나야만 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자주 넘어지든 다시 가야 해요. 결승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할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의 이보나 프르첵은 이렇게 간증한다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지나갈 거예요. 그저 강해지고 진리를 꼭 붙잡으세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의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삶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들은 숲속의 나무들처럼 높고, 굳세고, 곧고, 강해지길 희망한다. ■

필립과 아니 맥스필드가 이 기사의 작성을 도왔다. 그들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워싱턴 벨레뷰 스테이크 이사파 제5와드의 회원들이다.

알고 계십니까?



4월에 일어난 일

1832년 4월 14일: 브리감 영과 그의 아내 미리암이 뉴욕에 있는 연못에서 침례 받았습니다.

1853년 4월: 남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1898년 4월 1일: 최초의 독신 자매 선교사인 루시 제인 브림홀과 아만다 이네스 나이트가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1964년 4월 26일: 당시 십이사도였던 고든 비 힝클리 장로는 동경에서 아시아의 첫 번째 말일성도 집회소를 헌납했습니다.

2000년 4월 1~2일: 연차 대회가 거의 완공된 컨퍼런스 센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따라야 할 모범”,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61쪽.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을 때, 그분은 공평한 자들을 들어올리고, 낙담한 자에게 희망을 주셨으며,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나서셨다. 그분은 자신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셨다. 여기 우리가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고, 그룹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구세주가 그들을 보시는 것처럼 본다.
- 친한 친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어울린다.
- 누군가에 대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도록 노력한다. 이런 노력에는 질문을 한 후 귀 기울이는 일이 요구된다.
- 누군가에 대해 알고 있는 긍정적인 점들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다.
-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 준다.
- 진실한 격려와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힘을 모으기

“기술을 배우는 일을 개인 발전 프로그램 달성 및 와드 회원들에게 하는 봉사와 결합시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라고 엑시터 와드의 한

여러분의 모범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 주시는 영향력과 모범은 다른 사람을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로 개종시키느냐 아니면 흥미를 갖지 않게 하느냐 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스스로의 외모와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칠십인 회장단의 찰스 디디에이 장로, “모범의 힘, 성도의 빛, 1980년 6월호, 36쪽

청녀는 말한다. 청녀들은 암으로 고통 받는 연로한 와드 회원인 에타 커닝햄 자매를 위해 누비 이불을 만들었다.

청녀들은 이 활동을 즐겼으며 누비 이불 바느질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들은 또한 노인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웠다.

커닝햄 자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소녀들에게 감사 카드를 보냈으며, 소녀들은 그것을 청녀 기억의 책에 보관하고 있다.

원문: 잉글랜드 플리머스 스테이크, 엑시터 와드 청녀들 사진 제공.





교회로 인도됨

저는 2002년 2월에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제 남편과 아들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침례 후에 우리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으며, 이 잡지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성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곧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로 인도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합니다.

루시카 도브레,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선교부, 콘스탄타 지부

가정의 밤에 도움이 됨

매달 *리아호나*를 받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기사들은 항상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 자료가 됩니다.

라렉크 가족, 독일 하노버 스테이크 카셀 지부

방문 교육 메시지는 격려와 위안을 줍니다

제 삶에 *리아호나*가 있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리아호나*는 제가 전세계 회원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서 복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저는 방문 교육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제 영에 위안과 격려를 줍니다.

시리아 코테로,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오자마 스테이크, 알마 로사 와드

삶에 적용되는 리아호나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이 책은 저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걷도록 도와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2003년 10월 호가 좋았습니다. 모든 기사를 읽었으며, 하나 하나가 제 삶에 적용되었습니다. 전세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와 잡지에 매우 감사합니다.

티나 섀식, 캄보디아 프놈펜 북 지방부 프놈펜 제8와드

신앙의 수호자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일하고, 교회 부름을 수행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리아호나*를 일관성 있게 읽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교에 *리아호나*를 가져가서 틈 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 축복입니다. 잡지에 담겨 있는 기사들 덕분에 저는 생활에서 성신의 인도를 더 강하게 느끼며, 회복된 복음의 간증을 나누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 잡지는 제가 친구들에게 빛이 되도록 도와 주며, 신앙의 수호자가 될 힘을 줍니다.

리하이 스펜서 산티아고 라스트라, 페루 타크나 스테이크 나타비다드 와드

성전에 대한 사랑

저는 *리아호나*, 특히 어린이난을 사랑하며 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성경과 물몬경의 이야기들을 즐기며, 예언자와 성전 사진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섯 살인 제 딸은 초등학교에서 성전에 대해 배웠으며 언젠가 그 곳에 가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야디라 곤잘레스, 파나마 파나마 시티 스테이크, 신쿠엔테나리오 와드

어린이 기사에 대한 요청

구세주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들에 관한 경험을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Trying to Be like Jesu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cur-liahona-imag@ldschurch.org. 어린이의 성명, 주소, 소속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지부나 지방부 명칭)을 함께 적어 보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과 어린이의 사진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보혜사



파우스트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구세주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신다고 가르치신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그 옛날 구세주께서는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커다란 고통이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변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마가복음 1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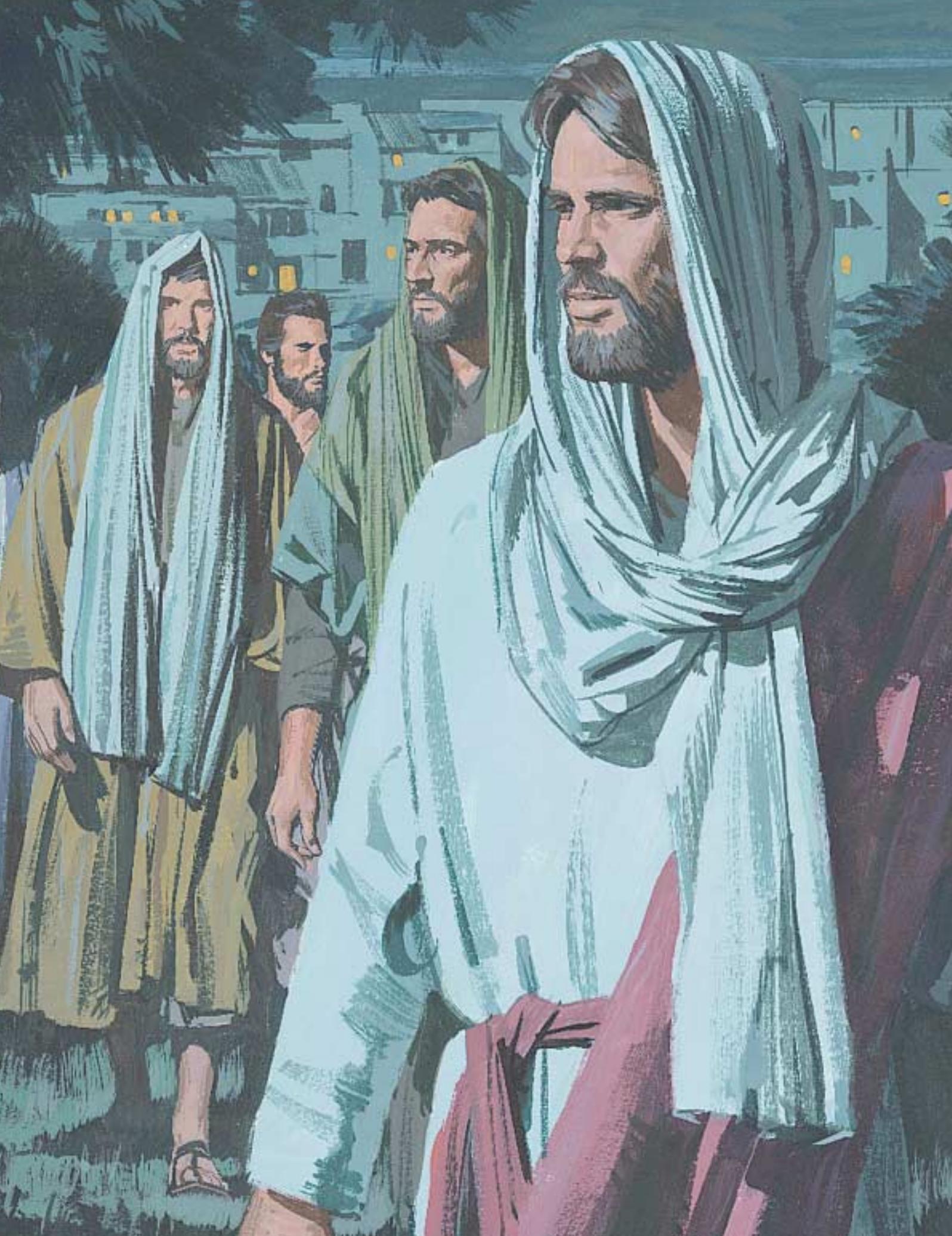
열한 사도들은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주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을 알았으나 그 곳이 어디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성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1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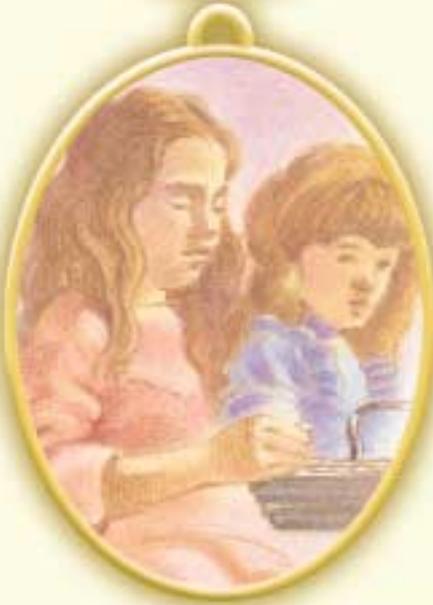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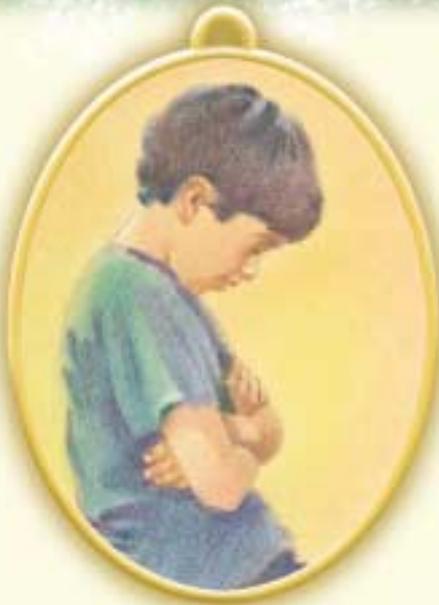
저는 젊은이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 특별한 성신의 은사에 대해 잘 알기 바랍니다. 성신의 위안의 영은 우리가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24시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켜 주는 그 영향력은 일년 내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가 향상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보혜사는 우리에게 압박한 위협에 대해 경고해 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 주는 계시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보고, 보다 예민하게 듣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오관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해 줄 방편입니다.

비록 우리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 등의 사람들처럼 구세주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해도 성신의 은사는 우리의 보혜사이자 확실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

1989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가족은 영원해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개개인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마가렛 리퍼스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 지상의 첫 번째 가족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고, 그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모세서 5:12 참조) 그들은 가족 생활이 주는 커다란 기쁨과 도전을 경험했습니다.(니파이이서 2:23 참조)

그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통해, 우리 각자는 가족의 일원으로 이 지상에 오게 되었습니다. 각 가족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실 수도 있고 한 분만 계실 수도 있으며, 자녀들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사촌과 조부모님과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 표준(하나님을 믿는 신앙 뒤표지 참조)을 배우고 그 표준에 따라 사는 것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영원한 가족을 갖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고, 십일조를 내며,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엄마와 아빠를 도와 드리며, 성찬을 취하고,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옳은 일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의로운 가족의 전통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나무

덤불이나 나무에서 작은 나뭇가지를 잘라 내, 화병이나 컵 안에 잘 놓아 둔다.(반드시 어른의 도움이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아니면 큰 종이에 나무 그림을 그린다. 친구들 4쪽에 나온 그림들에는 여러분이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 틀을 잘라 내고 각 틀의 맨 윗부분에 구멍을 낸다. 빈 틀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족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거나 쓴다. 줄이나 실을 이용해 틀을 나무에 걸어 놓는다.

주: 여러분이 잡지에 있는 페이지들을 떼어 내고 싶지 않으면, 복사를 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www.lds.org에서 인쇄해서 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영어 자료를 원하면 “Gospel Library.”를 클릭하고, 다른 언어로 된 자료를 원하면, 세계 지도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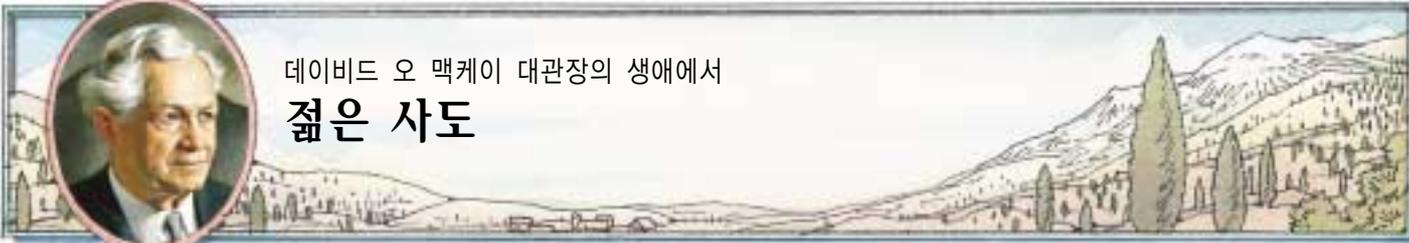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나이 든 어린이들을 위해: 물문경에 나오는 많은 예언자들은 가족을 강화하고 부모님을 영예롭게 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다음 참조 성구와, 단어를 자음과 모음으로 오려서 준다: 순종, 니파이일서 3:2~8; 기도, 이노소서 1:4~5; 일, 모사이야서 6:7; 회개, 모사이야서 27:8~14, 32; 신앙, 앨마서 53:18~22, 56:44~48; 경전, 물문서 8:1~5. 각 그룹에게 참조 성구에 나오는 이야기를 읽고, 단어의 자음과 모음을 올바르게 배열해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르치고 실천한 원리를 알아맞히고, 오늘날 그 원리에 따라 살면 어떻게 부모님을 영예롭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각 그룹은 그 경전 이야기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간단하게 발표한다. 이 원리들을 강화시켜 주는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2. 나이 어린 어린이들을 위해: 초등학교 그림 패킷 4~5(Lehi's family fleeing), 4~8(Nephi delivering the brass plates), and 4~16(Nephi and the broken bow)를 이용해 부모님에게 순종한 니파이에 대해 어린이들과 함께 이야기한다. 여러분이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어린이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기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의 생애에서 젊은 사도



데이비드,
급한 전화가
왔어요.

1906년 연차 대회 동안, 데이비드는 아내와 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솔트레이크에 있는 사촌들을 방문했습니다. 휴회 시간에, 그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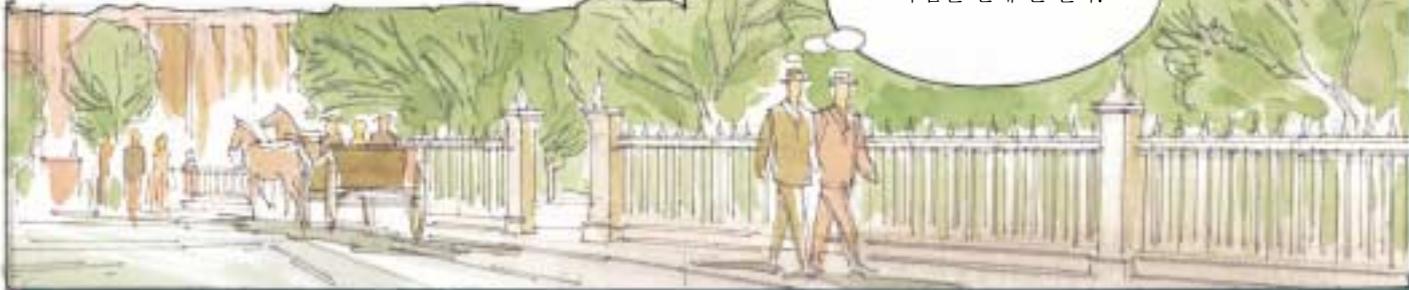
대관장단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소.



데이비드는 템플 스퀘어에서 사도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 장로를 만났습니다. 스미스 장로는 그를 대관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자신이 주일학교에서 스테이크 부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교회 교육 위원회에
부름을 받게 된 걸까.



프란시스 엠 라이먼 부대관장은 데이비드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그가 한 말에 데이비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형제님이시죠? 자, 주님은 당신이
사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 무슨
일이죠?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런 부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물론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친척의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비드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 아들이,
교회 교육 위원회에
부름을 받았느냐?

새로운 부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당신에게 이 부름을 수행할
능력을 주실 거라는 신앙이
있습니까?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엠마 레이는 대회 오후 모임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기 바로 전에,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성명이 발표되자 엠마
레이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겨우
서른두 살의 나이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렌스 맥케이, My Father, David O.
McKay(1989년)에서 발췌



인물 탐구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

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위의 사진들을 아래 나온 힌트들과
연결해 보세요.

- ___ 1. 스코트 장로는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 ___ 2. 청년이었을 때, 그는 여름 일자리를 얻으려고 유타 파크 서비스에 지원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유타를 여행했고, 부업에서 2주 동안 이 일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맘에 안 드시면, 돈을 안 주셔도 됩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그는 2등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 ___ 3. 그는 많은 흥미로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뉴욕의 해안을 향해하면서 이것들을 모으는 일도 있었습니다.
- ___ 4. 그는 재즈 음악을 좋아하며 이 악기를 연주할 줄 압니다.
- ___ 5. 청년이었을 때, 그의 여자 친구 지닌 왓킨스는 그에게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선교사로 나가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우루과이에서, 그녀는 미국

- ___ 6. 그는 과학을 좋아해서 핵 공학자가 되었습니다. 직원을 뽑는 면접에서, 면접관은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그를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수호했으며 핵 동력 기기를 고안하는 어려운 일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고용되었습니다.
- ___ 7. 그는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 삼 년 동안 이 나라에 살았습니다.
- ___ 8. 여가 시간에 스코트 장로는 야외에서 이것들을 보며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 ___ 9. 그는 또한 이 취미를 즐겼습니다.
- ___ 10. 그는 그들을 돕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

성도의 빛, 1990년 2월호.

참: 1사(워싱턴, D.C.), 27개(시애틀을 썼음), 3사, 4사, 5사(부터 패터이 상전), 6사, 7사(멕시코), 8사, 9사, 10사(왕도파과 여인).

가족 역사

두루마리

마가렛 쇼어스

오래 전에 사람들은 파피루스(식물로 만든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나 막대에 감은 가족에 글을 썼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은 두루마리에 쓰여졌습니다. 고대 두루마리들은 144피트(44M)나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만든 가족 그룹 기록들에 가족 역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두루마리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두루마리 또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두루마리마다, 8 1/2×11인치(22×28 cm) 크기의 종이 세 장, 투명 테이프, 풀, 연필이나 펜, 10인치(25 cm) 길이의 막대나 못 2개, 그리고 18인치(46 cm) 길이의 끈이나 리본이 필요합니다.

1. 종이의 8 1/2인치(22 cm) 폭 부분을 풀칠하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한 장의 긴 종이를 만든다.(그림 참조)
2. 종이의 왼쪽 끝에서 3인치(8 cm) 떨어진 부분에서 시작하여, “내 아버지, (아버지 성명)의 가족”(그림 참조)이라는

제목을 쓴다. 그 아래에 “부모”라는 제목을 쓰고, 아버지의 부모의 성명을 쓴다.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들”이라고 제목을 쓰고,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의 성명을 나이 순으로 쓴다. 아버지의 성명이 명단에서 반드시 올바른 순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성명 옆에 생년월일을 적는다.

3. 연결된 종이의 다음 장에, “나의 어머니, (어머니 성명)의 가족”이라고 제목을 쓴다. 그런 후 아버지 쪽을 했을 때와 똑같이 제목들과 어머니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쓴다.

(위의 2번과 그림 참조)

4. 마지막 장에는, “(여러분의 성명)의 가족”이라고 제목을 쓰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정보들을 기입한다. 부모와 형제 자매들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쓴다.(그림 참조)

5. 연결된 종이의 왼쪽과 오른쪽 끝에 막대나 못을 풀칠하고(그림 참조), 풀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막대를 중앙 쪽으로 감는다. 두루마리를 끈이나 리본으로 묶는다. ●

막대	테이프로 붙이거나 풀칠	테이프로 붙이거나 풀칠	막대
나의 아버지, _____의 가족 아버지 성명	나의 어머니, _____의 가족 어머니 성명	_____의 가족	
부모	부모	여러분의 성명 부모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	형제 자매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로나 피셔와 아세나카 레수마

피지 타베우니

마가렛 스나이더

아홉 살인 로나 피셔와 열 살인 아세나카 레수마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산다. 타베우니 섬은 피지의 300개가 넘는 섬들 중 세 번째로 크긴 하지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운전해 가는 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다. 이 곳에는 망고와 파파야, 바나나, 파인애플, 코코넛 등이 자라며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로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인 “강냉이 꽃”을 부른다.

타지모시아 꽃은 타베우니 섬 가장 높은 산 꼭대기의 호수, 폭포, 열대 우림 근처에서 자란다. 이 아름답고 희귀한 꽃은 세계 다른 지역에는 전혀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타지모시아와는 달리, 로나와 아세나카는 복음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둘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며, 타베우니 소모소모 지부에 참석한다. 그들은 서로 가까운 곳에 살지만, 마을이 다르고, 각기 다른 학교에 다닌다.

로나는 타베우니 중앙 인디언 학교에 다니며, 이 곳에서 반나절은 영어로 공부하고, 반나절은 힌두어로 공부한다.



그녀는 두 언어 모두 유창하게 말하며, 피지어도 약간 알고 있다. 아세나카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아침에는 영어로 공부한다. 오후에는 피지어를 말하며 피지와 피지 역사에 대해 배운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로나는 엄마의 설거지를 돕고 남동생들인 일곱 살 알프레드와 세 살 조슈아를 돌본다. “그



로나 피셔(위, 왼쪽과 오른쪽)와 아세나카 레수마(아래, 왼쪽과 오른쪽)는 다른 마을에 살고 다른 학교에 다닌다. 그러나 그들은 피지의 300개가 넘는 섬들 중 세 번째로 큰 타베우니 섬에 있는 같은 지부에 참석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가족과 복음을 사랑한다.



일은 쉽지 않아요!”라고 그녀는 외친다. 그녀의 남동생들은 매우 활동적이다. 알프레드는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축구를 한다. 로나는 또한 넷트 볼(야구와 비슷한 게임) 놀이를 좋아하고 사춘들과 인형 놀이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부조라는 이름의 자신의 개를 사랑한다. “부조는 우리가 가는 곳은 다 따라다녀요. 심지어 교회까지도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아세나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학생복을 빨아 넣어 둔다. 최근에는



아세나카(아버지와 함께,
오른쪽)와 로나(오른쪽)는
공통점이 많다. 그들은 둘 다
춤추기와 네트볼, 어머니
도와 드리기, 초등학교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타베우니
소모소모 지부에서 열리는
기타 다른 지부 활동들을
좋아한다.

비가 충분히 오지 않아서, 수돗물이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만 나온다. 물은 통에 모아
저장하고, 모든 가족은 필요한 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로나처럼, 아세나카도 어머니의 집안일을
거들고, 남동생인 아홉 살 멜리와 세살 조세바,
여섯 살인 여동생 메레시아나를 돌본다. 열일곱
살인 아이린, 열세 살인 카타리나, 여덟 살인
세라 등 사촌 세 명도 그들과 함께 산다.
아세나카는 집안일을 끝낸 후 그들과 노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들은 달리기와 술래잡기,
네트볼, 잡기놀이와 비슷한 “더 히”라는 게임도
한다.

로나와 아세나카는 둘 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의 지부에서는 활동
모임에서 공연하기 위해 스케이
댄스를 연습했고, 이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의상을 입었다. 이
의상들은 나중에 교회 모임에



갈 때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로나는 복음을 사랑하며 그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똑같다는 것을 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사시면서 치료를 받으신다. 할아버지를 방문했을
때 로나는 그곳 초등학교에 가보았다. 그 곳에는
나이별로 나누어진 반과 교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는 달랐다고 그녀는
말한다. 소모소모 지부에서는 초등학교 반에 모든
어린이들이 함께 참석한다. 그러나 공과는
똑같다.

아세나카 역시 복음을 사랑하며, 선교사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기도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경전을
읽는다. 나룻배를 타고 스무 시간이나 가야 하는
곳에 성전이 있긴 하지만 그녀는 더 나이가 들면
성전에 가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곳에서 결혼하여 미래의 그녀의 가족이 지금
그녀와 로나가 자라나는 모습처럼 복음 안에서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길 희망한다. ●

마가렛 시나이더는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코르도바 스테이크
헤이건 파크 와드의 회원이다.



우리를 살리시려 그분 돌아가셨네

감정을 넣어서 ♩ = 84-92

F C7 F B^b (G)

우 리 를 살 리 시 려 고 주 예 수 돌 아 가 셧

C Gm C7 (A) Dm Gm

네 쓸 쓸 한 갈 보 리 에 서 나

F Gm C7 F C7 F

위 해 생 명 버 렸 네 주 부 활 절 아 침 일 어 나 온

B^b C Gm C7 (A) Dm B^b

인 류 사 랑 을 나 타 내 보 여 주 셧 네 그 크 신

F A7 Dm G7 F C7 F

사 랑 기 뻘 게 다 감 사 찬 송 부 르 세

slower



작사: Thelma McKinnon Anderson, 1913-1997. © 1976 IRI
 작곡: Charlene Anderson Newell, b. 1938. © 1976 IRI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반주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13
 교리와 성약 20:23; 76:41

장미 정원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패트 웨인

저자의 경험에 근거하여

“**마**이크” 아빠가 부르셨다. “학교 갈 시간이다.”
마이크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면서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아빠를 보았다.

“가야만 해요?” 마이크가 물었다. “내일부터 가면 안 되나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내일내일 하면서 너무 오래 미뤄 왔다. 네 느낌이 어떤지는 이해한다. 그렇지만 밀린 수업을 따라가야지.”

“피터스 선생님이 숙제를 집으로 보내 주셨어요.” 마이크가 대답했다.

아빠는 한숨을 내쉬며, 마이크에게 스웨터를 건네 주셨다. “아빠는 오늘 다시 직장으로 가고, 너는 다시 학교로 가는 거다.”

마이크는 눈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물론 그는 다시는 울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껴안았다. “아빠도 알아.”
마이크는 아빠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마이크는 문을 나오면서, 엄마의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바라 보았다. 그러나 정원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여기 저기서 잡초가 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전과 같아질 수는 없는 걸까?

학교는 똑같았다. 뛰어다니며 떠드는 시끄러운 아이들.
마이크는 힘없이 삼학년 교실로 들어갔다.

가장 친한 친구인 샘이 손을 흔들었다. 마이크는 웃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잘 웃어지지 않았다. 그는 계속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피터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셨다. 마이크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듣고 있었지만, 바깥을 응시했다. 화창한 날씨였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지?” 콧잔등으로 눈물이 흘러 내렸다.

“봐, 마이크가 운다!” 건너편에 앉아 있던 빌이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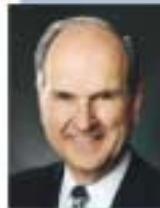
생각하지도 않고, 마이크는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달려 내려갔다. 다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커다란 학교 문을 밀쳐 열고, 다섯 블록을 달려 집으로 왔다. 스웨터가 없어서 추웠다.

그는 방에 가서 잠바를 꺼내 입고, 뒷마당에



삽화: 스킵트 그리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 계속됩니다. ... 성전에서 인봉을 받음으로써 가족 관계는 계속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 “죽음의 문”,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74쪽

있는 그네에 가 앉았다. 땅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마이크는 그네를 타고 앞뒤로 왔다갔다 했다.

할머니 댁에 갈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으나, 지금은 할머니도 슬프시다. 할머니는 예전엔 잘 웃으시고 불링을 치러 가셨으며 과자도 구우셨다. 그는 할머니가 다시 그런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했다.

마이크는 그네를 타고 더 높이 올랐다. 아마, 떨어져 죽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마이크는 생각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엄마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나무에 부는 바람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럼 아빠와 할머니가 널 보실 수 없잖아. 아빠를 떠나고 싶니?”

그는 발을 땅에 끌어 그네를 멈추었다. 누가 말했지? 하늘 나라에서 엄마가 말씀하신 걸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바람에 부스럭거리는 나뭇잎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마이크는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절 도와 주세요!” 다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엄마의 장미 정원에 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이크는 물도 주지 않고, 잡초 투성이가 된 초라한 장미 넝쿨을 서서 내려다 보았다. 엄마가 분명 좋아하시지 않을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원 호스를 붙잡고 잡초를 뽑아 낸 넝쿨에 물을 주었다. 곧 봄이 되면,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의 화려한 장미들이 피어날 것이다. 그는 엄마가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실지
궁금했다. 엄마의 정원에서
일하니 어쩐지

엄마와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빠의 차가 부르릉거리며 차고로 들어섰다. 아빠가 차에서 뛰어나와 달려오셔서 마이크를 껴안으셨다. “학교에서 전화를 했더구나.”

“내일 다시 돌아갈 거예요.” 마이크가 약속했다. “아빠, 장미 넝쿨 좀 보세요.”

“엄마가 대견해 하시겠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옷을 갈아 입고 나올 테니, 함께 일하자꾸나.”

마이크는 아빠 옆에서 잡초를 뽑으며, 앞으로 피어날 장미들에 대해 생각했다. 마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다. 마이크는 꽃들이 피면, 할머니께 꺾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이크가 고개를 들어보니 샘과 빌이 와 있었다. 두 소년은 잡초들을 바라보았다.

“도와 줄까?” 샘이 물었다.
마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



성전 카드

2003년 매 호에는 성전 카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후로, 더 많은 성전들이 헌납되었습니다. 그 중 아홉 개의 성전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홉 개의 성전이 더 헌납되면, 잡지에 한 페이지가 더 실릴 것입니다. 이 쪽을 잡지에서 떼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카드를 올려 내세요. 그 카드들을 예전 잡지에 실렸던 카드들과 함께 모으고, 성전의 중요성을 기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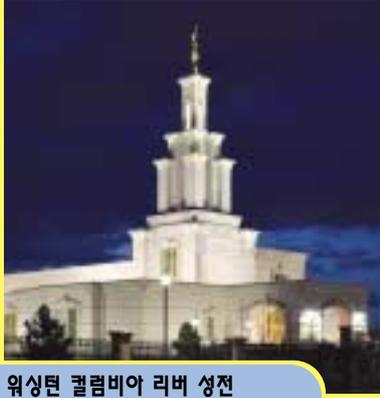


사진 촬영: 페트리 나 킴블

워싱턴 컬럼비아 리버 성전

2001년 11월 1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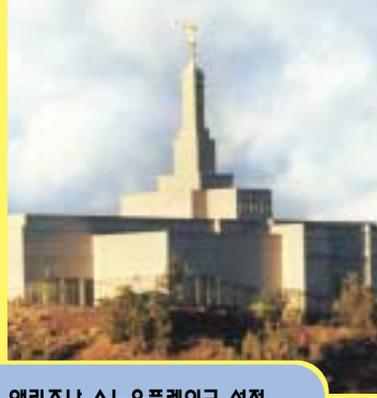


사진 촬영: 볼트 시 덴더슨

애리조나 스노우플레이크 성전

2002년 3월 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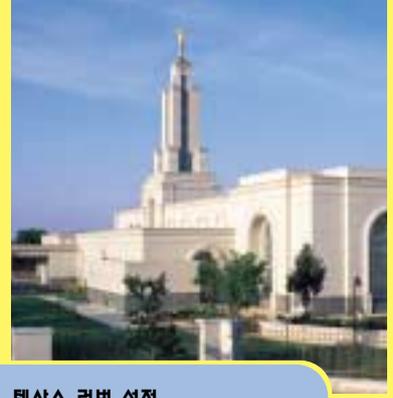


사진 촬영: 볼트 시 덴더슨

텍사스 러버 성전

2002년 4월 2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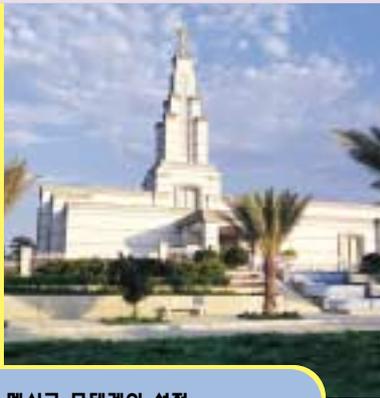


사진 촬영: 앙드레아스 예스트라다 예스쿠테로

멕시코 몬테레이 성전

2002년 4월 2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제이슨 스톱스, 저지 누스 제곱

브라질 캄피انس 성전

2002년 5월 1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제이슨 스톱스, 저지 누스 제곱

파라과이 아순시온 성전

2002년 5월 1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존 토크

일리노이 나부 성전

2002년 6월 2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오 제이 볼, 저지 누스 제곱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

2002년 9월 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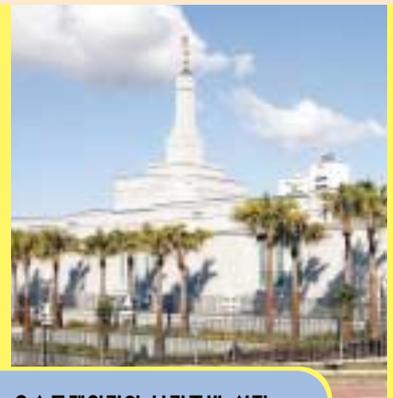


사진 촬영: 오 제이 볼, 저지 누스 제곱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 성전

2003년 6월 1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